금수강산

5

주체107(2018)
루계 제345호 월간

 ISSN 1727—9062

바다 만풍가

2.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나네
땅우에는 단풍계절 한해 한번 있다지만
우리네 바다는 사시장철 풍성한 가을일세
산더미로 퍼올려 어그여차
물고기산 쌓아라 어그여차
어그야 디야
이 기쁨이 뉘 덕이냐 원수님의 은덕일세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해가세

평양아동백화점에서

학생소년들이 《대성산》상표를 단 축구공, 배구공을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기재들을 사들고 앞날의 체육명수로 자라날 꿈을 약속해간다.

본사기자 최은혁

차 례

날로 늘어나는 우리의 제품

웃음보다 인간을 더 아름답게 하여주는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꾸밈없는 인민의 그 웃음속에 우리 조국도 나날이 아름다와지고 더 빛나고있다.

창조와 건설의 동음높은 공장에 가보아도 좋고 불빛밝은 수도의 거리를 걸어보아도 좋다. 그러면 로동의 희열과 랑만으로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볼수 있고 창창한 래일에 대한 희망이 넘친 락관의 노래도 들을수 있다.

보통강백화점에서 만난 평양시 서성구역 상신동에 살고있는 최정심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따뜻하고 아늑한 감을 안겨주는 훌륭한 이 백화점에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명제품, 명상품들이 짝 들어차있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러자 옆에 서있던 봉사원은 이곳을 찾았던 어느 한 나라의 대표단단장이 조선의 문명이 세계를 압도한다, 조선에 대한 제재의 도수를 올리고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보면 깜짝 놀랄것이다, 제재라는 말은 조선에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더욱 놀라운것은 백화점을 리용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근로인민이라는 사실이다라고 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이때 어떻게 되여 이 땅에서는 그렇듯 긍지높은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것인가.

인민이 향유하고있는 행복을 우리는 먼저 나날이 늘어나는 제품들에 고귀한 땀과 지혜를 바쳐가는 인민의 창조적로동속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선흥식료공장은 조국인민들이 즐겨찾는 《선흥》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우리와 만난 선흥식료공장 지배인 리희숙은 겉보기에는 수수한 녀성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야심만만한 배짱과 의지가 차있

여러가지 운동신들이 쏟아져나온다. (류원신발공장에서)

국내의 원료와 자재로 제품들이 생산된다.

는듯 하였다.

《창조는 곧 기쁨이다.》

이 말로 이야기의 시작을 뗀 그는 10여년전 크지 않은 식료공장의 지배인으로 사업하게 된 후 공장의 이름을 먼저 흥한다는 뜻을 담아 《선흥》이라고 달았다고 하는것이였다.

《선흥》, 여기에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갈 지배인과 공장 로동계급의 지향이 함축되여있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손에 다른 나라의것과 대비조차 할수 없는 맛좋은 당과류를 쥐여주고싶었고 우리 인민들이 선흥식료공장의 제품들부터 먼저 찾도록 하고싶었다.

결심은 그대로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때부터 리희숙은 가정살림을 깐지게 해나가는 주부마냥 공장살림을 꾸려나갔다.

공장에서는 로력관리, 설비관리를 짜고들고 자재류실을 막는 한편 원료확보에 늘 관심을 돌리였으며 원단위소비기준을 옳게 세운데 맞게 경영원칙과 방법을 나날이 개선시켰다. 생산과 판매가 끊임없이 공존하는 속에 늘어나는 물질적부는 그대로 설비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확대재생산에 돌려졌다.

리희숙은 공장안의 모든 종업원들이 상표도안가, 새 제품개발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고 자신부터가 이 사업에 앞장섰다.

집체적지혜와 힘을 모아 창안된 성과는 곧 생산에 도입되군 하였다. 이렇게 되니 차츰 구매자들속에서는 《선흥》제품에 대한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갔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은 해외에서도 인기를 모았다.

우리의 제품들을 더 훌륭하게, 더 많이 생산하는 과정에 그들은 창조의 기쁨을 맛보았으며 그것은 그대로 선흥식료공장 로동계급의 가슴속에 간직된 민족적자존심과 존엄의 과시로 되였다.

선흥식료공장뿐이 아니다.

평양곡산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하여 각 도, 시, 군들에 일떠선 식료공장의 로동계급은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기치높이 자력자강의 힘으로 공장을 개건하여 새로운 생산적앙양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식료공업과 함께 피복, 신발공업들도 일떠섰고 기계, 화학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서도 통장훈을 불렀다.

지난해 우리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힘으로 만들어낸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들이 사회주의농촌으로 줄지어나갔고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 우리의 자재로 꾸려놓은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에서는 세계적수준의 칠감이 쏟아져나왔으며 개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는 멋쟁이무궤도전차가 생산되여 동음을 울리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국의 곳곳에서 날로 늘어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기쁨의 소식이 되여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있은 듯싶다.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의 제품들이 늘어나고있는 이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은정,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몇해전 1월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쁨의 웃음꽃을 한껏 피우는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 또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나아가자고 자신의 심중을

새 학용품을 받아안고

평양아동백화점의 아동옷매대에서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의 산물고기매대에서

뜨겁게 터놓으시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공업부문에 주신 유훈을 한건한건 연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평양화장품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현대적인 공장으로, 우리나라 화장품공업의 표준, 본보기공장으로 완전히 일신시키실 결심을 품으시고 몸소 현지를 돌아보시며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개건형성안은 물론 마크, 상표도안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도해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과 과학기술력량, 자재보장대책까지 몸소 세워주시고도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안목을 틔워주시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들도 보내주시였다.

그후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화장품생산기지로 전변된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자체로 제작설치한 현대적 설비들과 사장되여있던 설비들을 모두 개조하여 생산에 리용할수 있게 한것을 보시고 대단히 기뻐하시며 우리가 만든 설비들을 볼 때가 기분이 좋다고 그토록 환하게 웃으시였다.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주체화, 현대화가 실현된 평양가방공장과 류원신발공장, 평양메기공장, 순천메기공장,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등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우리의 원료, 우리의 자재, 우리의 설비로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게 생산된 제품들이 그 어느 상점에나 꽉 들어차 있다.

조국인민들이 누리는 행복한 현실에 대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는 속에 얼마전 어느 한 나라의 단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편견없이 들여다보자》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리였다.

《최근 북조선을 방문한 사람들은 서방언론들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목격하고 놀라움과 감탄을 표시하고 있다.

북조선사람들은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는 조건에서도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하고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는 그 어떤 불안이나 동요, 근심 같은것을 찾아볼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웃음에서 래일에 대한 락관을 느낄수 있다. 오랜 세월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으며 아직까지도 전쟁위협속에서 살고있으나 그들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모든것을 훌륭하게 해나가고있다.

지금 조선은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걷고있다. 시간이 다르게 화려한 거리들이 계속 일떠서고있으며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능력이 날로 커가고있다. …》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고 무너졌을 그 엄혹한 현실속에서도 온갖 시련을 웃음으로 맞받아나가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적들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가는 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성과들이 조국땅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다.

날로 늘어나는 우리의 제품과 인민의 웃음소리.

우리는 이 모든 현실앞에서 자기의 힘으로 행복을 가꾸어가는 조국인민의 창조본때, 투쟁방식이 안아오게 될 더 좋은 래일을 그려보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된 제품들로 인민소비품전시회가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 일 화 ◇

《소나무》책가방

오늘 학교로 오가는 우리 학생들의 어깨마다에 《소나무》책가방이 메워져있다.

걸을 봐도, 안을 봐도 남의것이 조금도 부럽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소나무》책가방!

모양곱고 질좋은 가방에 동심에 맞게 그려진 소년장수며 령리한 너구리, 금시라도 솔잎의 향기가 풍길듯싶은 가방상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소나무》책가방을 메워주는 학부형들의 눈에 떠오르는 모습이 있다.

그것은 지난해 1월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시여 100%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만든 가방을 손에 쥐시고 이리 보고 저리 보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모습이였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때 몇몇 아이들이 한손에는 책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는 악기와 소지품들까지 들고 불편하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눈에 밟혀와 그들에게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자고 결심하신 그이이시였다.

그래서 경공업부문의 한 일군에게 전화를 걸어주시여 아이들에게 멋진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자고 마디마디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때부터 아이들의 가방생산을 위한 사업이 소리없이 시작되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가방도안가, 제작가가 되시여 도안가들의 눈을 틔워주시기 위해 가방생산과 관련한 참고서들을 해당 부문 전문가들에게 보내주기도 하시였으며 450여건이나 되는 도안도 보아주시고 가방상표도안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하기에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우리가 만든 멋쟁이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은 우리가 만들어 안겨주어야 그들이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는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간직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평양가방공장은 보배공장이라고 하신것 아니랴.

정녕 이렇듯 다심한 어머니의 품에서 우리 아이들은 소나무처럼 굳세게 조국의 기둥감들로 자라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엄향심

정말 마음이 흐뭇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소학교 2학년생인 아들 일진이를 학교정문앞에서 바래우고 출근길에 오르군 합니다.

달랑달랑 책가방을 메고 학교정문으로 들어가는 일진이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느라면 정말이지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아들이 입고있는 교복과 신고있는 신발, 어깨에 메워져있는 가방 그리고 가방안에 들어있는 학습장을 비롯하여 그가 언제나 애용하는 그 모든것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기때문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난해 3월말 유치원을 졸업한 우리 일진이는 소학교에 입학하면서 새 교복과 《소나무》책가방을 받았는데 글쎄 교복의 안주머니에는 차곡차곡 포갠 하얀 목달개가 있었고 옷섶에는 장난세찬 아이들을 념려하여 예비단추까지 달려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아니라 《소나무》책가방은 색갈도 형태도 동심에 꼭 맞게 만들어졌고 그안에 민들레학습장과 학용품까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세심할가.

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도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 일진이만이 아닌 온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너무도 스스럼없이, 응당하게 받아안고있습니다.

지금 적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어버리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퍼뜨리고 건전치 못한 옷과 물건을 우리 내부에 깊숙이 들이밀어 인민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발악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의 모든것을 사랑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는것이 바로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최근년간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고립과 봉쇄, 제재책동은 극도에 달하여 식량, 금속, 기계뿐아니라 의약품, 체육기자재 심지어 아이들의 놀이감까지 우리 나라에 들여보내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제재속에서도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물질적부를 하나, 둘 끊임없이 늘여나가고있습니다.

《민들레》, 《류원》, 《소나무》, 《금컵》 등 우리의 상표를 단 갖가지 제품들이 상점마다 가득가득 쌓이게 되니 우리 인민들에게 어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지 않겠습니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은 바로 우리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갈 때 생기는것이라고 봅니다.

하기에 저는 저의 모든 생활속에 친근하게 와닿고있는 우리의 제품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지고 창조의 희열속에 자기 맡은 일에서 혁신을 안아올 결심을 더욱 굳히군 합니다.

우리의 제품들이 나날이 늘어날수록 인민들의 가슴속에서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게 될것이며 적대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리게 될것입니다.

하기에 저의 적은 힘이나마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해나갈 결심만 커지게 됩니다.

평양시 순안구역 신성동
리경애

수 기

새 뜨락또르에 올라

저는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의 뜨락또르운전수입니다.

아침마다 농장포전으로 뜨락또르를 몰고갈 때면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80hp뜨락또르 《천리마-804》호와 처음 인연을 맺던 지난해말의 그날이 어제런듯 떠오르군 합니다.

그날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수백대나 되는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들의 진출식이 진행되였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농장에 보내주신 새형의 뜨락또르를 운전하게 되였다는 기쁨으로 하여 가슴이 울렁거리기만 하였습니다.

김일성광장의 나라길시작점을 떠나 힘찬 동음을 울리며 사회주의전야로 달려나가는 새 뜨락또르들과 화물자동차들을 바래우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도 환희가 넘쳐나고있었습니다.

이윽고 제가 새 뜨락또르를 몰고 우리 농장어구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동구길에서 많은 농장원들이 손에손에 꽃다발과 오색테프를 들고 뜨락또르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새형의 뜨락또르가 보인다-》, 《우리 뜨락또르가 들어온다-》라는 환성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잠간사이에 뜨락또르주위가 사람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것없이 모두가 새 뜨락또르를 둘러싸고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텔레비죤에서 볼 때도 멋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 정말 미남자이구만!》

잠시후 김영복관리위원장이 저를 사람들앞에 내세우며 《자, 우리 직접 뜨락또르를 몰고온 광철동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요. 새형의 뜨락또르가 얼마나 훌륭한가를.》라고 하였습니다.

농장원들이 걸어준 꽃목걸이며 꽃다발속에 묻히다싶이 한 저는 격정에 넘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시동도 만점, 조향도 만점, 거기에다 얼마나 기운차게 씽씽 달리는지 발갈이하는 뜨락또르같지 않습니다.》

순간 농장원들속에서 환성과 박수소리가 또다시 터져올랐습니다. 모두가 뜨락또르를 어루쓸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새해농사에서도 기어이 통장훈을 부를 결의에 충만되여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농장포전에서 농사일을 진행하면서 직접 느끼군 하는데 확실히 80hp뜨락또르 《천리마-804》호는 원래 제가 운전하던 다른 나라의 60hp 뜨락또르와는 비할바없이 성능이 우월했습니다.

올해 초봄에 우리 농장원들이 황금벌의 새 력사를 안아올 열의를 안고 가득 생산한 질좋은 거름을 포전마다 실어나르는 작업을 할 때 어찌나 성수가 나는지 저는 매일 하루계획을 150%씩 해제끼군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농장벌에 울려퍼지는 새 뜨락또르의 우렁찬 동음속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알곡증산성과가 나날이 커져가고있습니다.

저는 나라의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위하여 늘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마련되고 우리 로동계급의 자력갱생의 정신이 낳은 고귀한 창조물인 새 뜨락또르를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다루고 관리해나감으로써 해마다 풍작을 이룩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겠습니다.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 기계화작업반 김광철

봉사기지에 넘치는 인민의 기쁨

얼마전 우리는 려명거리와 함께 세워진 봉사기지들이 활기를 띤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았다.

거리의 입구에 들어서는 우리의 눈에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어머니들이 기쁨에 겨워 드나드는 류다른 상점이 안겨들었다.

민들레상점이라는 간판을 내건 상점안에는 학습장을 사려온 손님들로 흥성이였다. 손님들중에는 도화공작학습장을 사달라고 어머니에게 말하는 처녀애도 있었고 동무들과 함께 학습장을 고르는 대학생들의 모습도 보이였다.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대학생들과 사무원들의 기호와 용도에 맞게 만든 각종 학습장들은 질과 형태도 좋아 손님들의 눈길을 끌었다. 《민들레》상표가 그려져있는 학습장들이 가득차있는 상점안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도 흐뭇하였다.

작은 손에 여러권의 도화공작학습장을 꼭 쥔 처녀애와 함께 상점을 나선 우리가 다음으로 들린 곳은 각종 가구들과 건재들을 주문봉사해주는 칠보건축기술교류사였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섰을 때 봉사원이 나이지숙한 녀성에게 여러 가구들을 보여주고있었다. 려명거리에서 살고있다는 리명희녀성은 마치 봉사원이라도 된듯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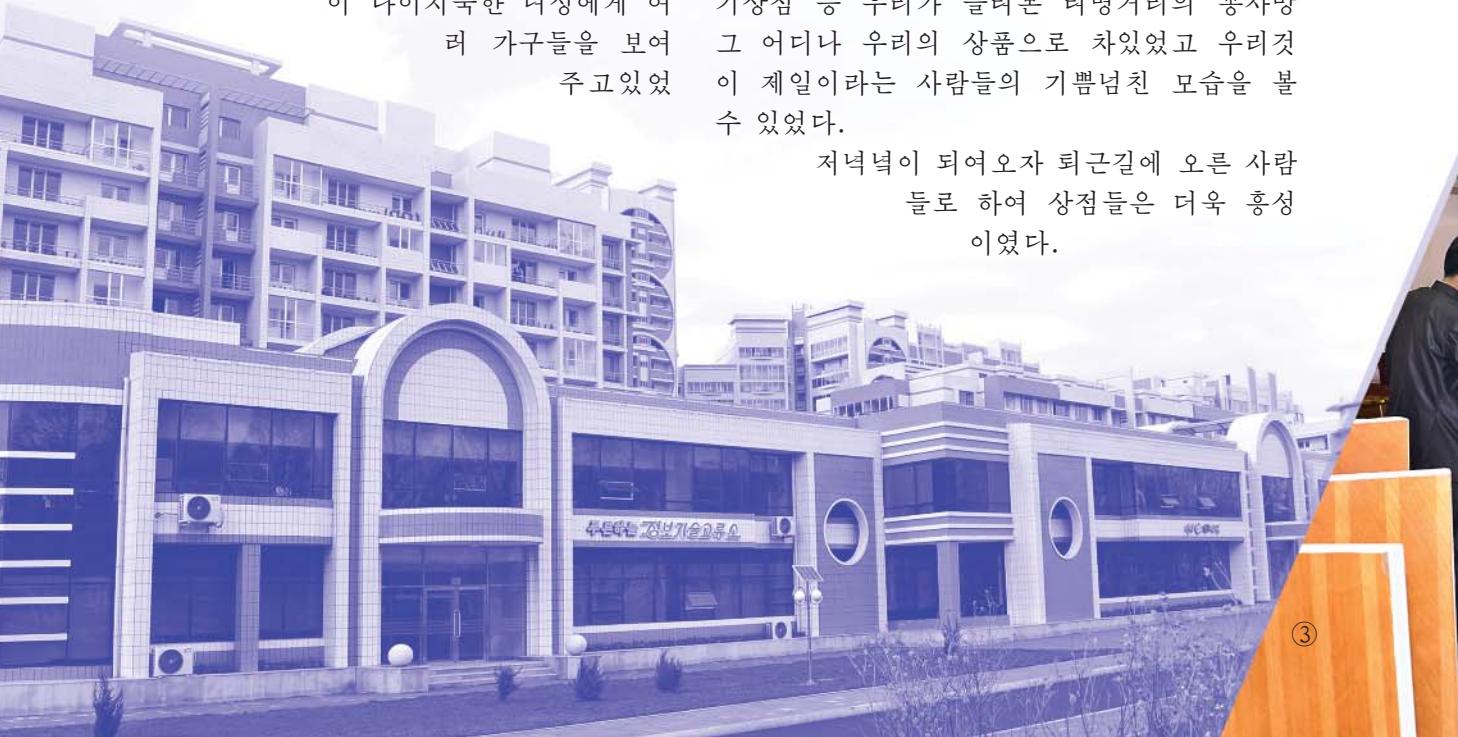
《이곳에서 판매하는 우리 나라 가구들이 정말 좋습니다. 려명거리에 입사하는 날 집에 옷장을 새로 갖추어놓았는데 색갈도 좋고 쓰기도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새살림을 꾸리는 아들네 가구도 여기서 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상점안을 돌아보니 가구들과 타일들이 모두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들이였다.

오일종합가공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로 가득찬 오일음료상점도 마찬가지였다.

여러 과일음료들과 수소수, 에네르기음료, 인삼장생음료를 비롯한 건강음료들 그리고 각종 에스키모들의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손님들은 《이거 하루에 몇가지씩 맛보아도 며칠은 잘 걸리겠구만.》, 《수소수를 마시고 젊어지겠는걸.》 하며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대동강과일직매점, 룡흥비단상점, 룡흥물고기상점 등 우리가 들려본 려명거리의 봉사망그 어디나 우리의 상품으로 차있었고 우리것이 제일이라는 사람들의 기쁨넘친 모습을 볼수 있었다.

저녁녘이 되여오자 퇴근길에 오른 사람들로 하여 상점들은 더욱 흥성이였다.

려명거리에 건설된 봉사망들중에서
① 오일음료상점
② 룡흥비단상점
③ 칠보건축기술교류사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인기령역이 넓어진다

새 제품개발을 위해

인체든 그 어디든 손쉽게 들여다볼수 있는 내시경, 이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여 오늘 의료용, 공업용내시경들이 광범히 실천에 도입되고있다.

그러나 광학, 전자공학, 생체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의 집합체라고도 할수 있는 내시경은 현재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다. 그러다나니 내시경을 수입하는 나라들의 대렬이 늘어나는것과 함께 그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있다.

평양내시경기술교류사에서는 정력적인 연구활동과 도입실천과정을 통하여 첨단기술기재인 여러가지 내시경들을 개발하였다.

교류사의 한혜철을 비롯한 연구사들은 내시경제작분야에서 세계를 압도할 야심만만한 목표를 내걸고 30여년간에 걸쳐 끊임없는 사색과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연구사들자체가 여러 학문에 정통하고 내시경들을 국내의 원료와 자재로 만들기 위해 연구를 심화시켰다. 그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완전히 파악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연구사들은 종전의 값비싼 빛섬유조명방식을 값눅은 레드조명방식으로 전환하고 CCD소편에 의한 전자화상전개방식을 실현하였으며 지난 시기에 비하여 화소수를 수십배이상 끌어올려 제작한 의료용내시경들을 직접 자기 몸안에 넣어보기도 하면서 내시경의 안전성과 과학성을 증명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조선의것이라고 말할수 있는 위내시경, 흉복강경, 이비과내시경, 비뇨기내시경, 자궁경, 뇌실내시경, 유도경, 루도경 등 각종 형태의 경성 및 연성내시경들과 전자화상내시경들을 생산하여 인체 각 부위의 진단과 치료에 도입하였으며 수천명의 환자치료과정을 통하여 그의 기술, 경제적우월성을 확증하였다. 특히 유도경과 루도경은 그의 작업부외경이 각각 0.6㎜와 0.8㎜로서 세계적수준을 릉가하였다.

교류사에서 생산한 의료용내시경들은 국제표준규격에 맞으며 20여년간 림상실천에서 충분히 검토완성되였다.

이뿐아니라 경락연구에서 긴요하게 제기되는 생체조직내시경을 비롯한 과학연구용내시경과 함께 내시경을 소형화, 경량화하여 휴대용으로 쓸수 있게도 만들었다.

교류사에서는 선박, 자동차, 유압설비, 발전설비, 각종 기계설비들에서 요구되는 여러가지 형태의 공업용내시경들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하였으며 각종 내시경들을 마음먹은대로 제작할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구축하였다.

주체화된 이 내시경들은 보건부문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큰 은을 내고있으며 그 인기는 지경너머에서도 높아가고있다.

주체105(2016)년 12월에 진행된 제26차 국제모스크바보건전람회에 전시된 평양내시경기술교류사의 내시경들을 본 외국인들은 모든 내시경제품들이 기술적지표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사들의 제품과 대등하며 일부 지표에서는 앞서고있다, 해상도와 성능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섰다고 하는 나라의것과 대등하며 가격에 있어서 그보다 훨씬 눅다고 하면서 앞으로 교류사와의 기술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갈 의사들을 표명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평양내시경기술교류사에서 개발한 제품들의 일부

상식

조선의 국화 목란

목란은 우리 조국의 국화이다.

이 나무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함박꽃나무, 목련화(련꽃과 같은것이 나무에 핀다는 뜻)로 불리워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 꽃나무를 보시고 이처럼 좋은 꽃나무를 그저 함박꽃나무라고 부른다는것은 어딘가 좀 아쉬운 감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에는 《란》자를 붙이였는데 나무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뜻에서 이 꽃나무의 이름을 《목란》이라고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목란꽃은 아름다울뿐아니라 굳세면서도 소박하고 고상한 맛이 있어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기상을 다 담은것 같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때부터 이 나무는 목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였으며 민족의 상징으로, 나라의 국화로 정해지게 되였다.

목란은 우리 나라 각지(함경북도와 량강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 제외)에 퍼져있다. 나무의 높이는 2~5m이다. 보통 여러대의 원줄기가 뿌리목에서 모여나와 포기를 이루며 드물게는 줄기가 외대로 나와 작은 키나무처럼 자란다. 꽃이 제일 많이 피는 시기는 5월말-6월중순이며 7월 초중순에는 거의다 진다. 목란꽃은 햇가지가 자라는 순서대로 피여나므로 한 나무에서 꽃을 볼수 있는 기간은 50~60일이다. 열매는 길둥근모양(길이 5~6㎝, 직경 3~5㎝)의 쪽꼬투리열매이다. 추위견딜성이 세고 우리 나라 기후조건에서 잘 자라며 번식은 씨앗, 접, 가지휘여묻기, 포기가르기 등으로 한다.

목란은 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우며 나무잎과 나무모양이 보기 좋으므로 주로 거리와 공원 등에 심으며 공원, 유원지에 계곡을 형성하고 다른 나무들과 섞어 심으면 나무도 잘 자라고 풍치도 좋아진다. 뿐만아니라 화분에 심어 방안과 주요건축물의 입구량쪽, 휴게실, 회의장 등에 놓기도 한다.

꽃은 고급향료의 원료로 쓰며 잎은 서리전에 따서 그늘에 말리워 고혈압증이나 어지럼증에 쓴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두만강을 건너

(전호에서 계속)

김준이 룡정과 온성일대에서 우리에 대한 선전을 하였다면 채수항은 화룡과 종성지방을 왔다갔다하면서 우리의 혁명사상을 선전하였다. 그는 후에 현당서기로 사업하다가 《민생단》련루자로 몰려 억울하게 학살당한 김일환동무와 함께 공청도 조직하고 반제청년동맹, 농민협회, 반일부녀회와 같은 혁명조직들을 꾸려 여기에 수많은 군중을 집결시켰다. 연길폭탄제조의 명수로 소문난 박영순동무도 연길현의 팔도구광산에서 반제청년동맹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모처럼 꾸려놓은 조직들이 두차례의 폭동때문에 풍지박산이 되였다. 많은 핵심들이 잡혀가거나 지하로 들어갔고 얼마 안 남은 조직성원들마저 세련이 부족한탓으로 불안에 떨면서 어찌할바를 모르고있었다.

이런 실태는 나로 하여금 혁명가의 신념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카륜을 떠난 후 길림, 해룡, 청원, 교하, 할빈, 돈화를 거쳐 화룡까지 오는 과정에 나는 반혁명의 공세앞에서 겁을 집어먹거나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고 동요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만인을 공감시키고 불러일으킬수 있는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이 있고 자체의 혁명력량이 있다는것을 원리적으로 체득할 때에 생기며 투쟁을 통하여 굳어지는 법이다.

그런데 폭동을 선동한 사람들은 대중이 기치로 삼을만 한 강령이나 전략전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카륜에서 채택한 혁명로선은 아직 인민들속에 널리 침투되지 못하고있었다. 나는 채수항을 비롯한 몇몇 공청, 반제청년동맹 간부들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그들에게 카륜회의에서 채택된 혁명로선을 상세하게 해설해주었다.

그리고 투쟁을 통하여 검열된 신망있는 동무들로 지도핵심을 잘 꾸리며 파괴된 대중조직들을 시급히 복구하고 그 대렬을 부단히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두만강연안의 매개 현들에 혁명조직구를 내올데 대한 과업도 이때에 주었다.

폭동조직자들은 감옥과 교수대가 두려워 대중을 총검앞에 남겨두고 다 도피하였지만 우리는 폭동의 후과를 빨리 수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내가 산동옷을 입고 다녔기때문에 화룡의 동무들은 나를 《산동청년》이라고 불렀다.

내가 두번째로 찾은 곳은 왕청이였다. 내가 왕청에 들린 목적은 오중화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나에게 오중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것은 김준, 채수항동무들이였다. 그들이 길림에 들락날락할 때부터 나를 만나기만 하면 어디에 누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무슨 일을 하는 누가 있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게 똑똑하다는 식으로 인물소개를 많이 하였기때문에 나는 길림에 있으면서도 간도일대의 사정을 비교적 환히 꿰들고있었다.

나는 그때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듣고 그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기억해두었다.

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그가 어디에 있건 끝까지 찾아가 기어이 손을 잡고 동지로 포섭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나에게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 진정한 동지를 얼마만큼 많이 얻는가에 따라 혁명사업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동지 한명을 얻을수만 있다면 사흘을 굶어도 좋고 열흘을 굶어도 좋다는것이 그 당시 나의 심정이였다. 이런 심정으로 나는 왕청에도 들리였다. 채수항이 화룡에서부터 왕청 석현까지 나와 동행하였다.

나는 석현에서 오중화도 만나고 오중흡도 만나고 오태희로인도 만나보았다.

오태희로인네 집안은 보기 드문 대가정이였다. 로인네 네 형제는 원래 함경북도 온성군 고작골이라는데서 살다가 1914년경에 왕청땅으로 이사하였다. 그 네 형제의 자손들을 모두 합치면 수십명이 되는데 그들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왕청과 온성땅에 쭉 널려살면서 혁명사업을 하였다. 그 당시 오중화는 왕청5구 당비서로 사업하였고 오중흡은 왕청현 춘화향 원가점에서 공청사업을 하고있었다. 오중화의 동생인 오중성은 왕청현 석현에서 공청활동을 하다가 1929년초에 온성군 풍리동으로 이사하여 보문학당 교원의 간판을 가지고 혁명사업을 하고있었다.

오중화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화룡에 있는 사립화성학교 교원을 하였다.

나는 그때 석현에 가서 오중화동무에게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혁명가가 되고 그다음에는 가족과 마을사람들을 혁명화해야 한다는것을 거듭 일깨워주었다.

오중화는 그후 가정혁명화를 잘하였다. 그의 가까운 형제들과 친척들가운데서 10여명이 충실한 혁명가로 활동하다가 희생되였다. 그가운데서 오중화, 오중성, 오중흡과 같은 훌륭한 공산주의자들이 배출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석현에서 일을 끝낸 나는 그달음으로 온성지구에 건너갈것을 결심하였다. 서도지방에서 태여나 어린 나이에 이국살이를 시작한 나에게는 두만강이남의 륙읍일대에 대한 파악이 별로 없었다.

륙읍일대는 리조때 벼슬자리에서 쫓겨난 량반들이 정배살이를 하던 고장이였다. 곡식이 바르고 기후가 엄혹한데다가 우두머리들의 구박과 학대가 심해서 변방수비에 동원된 군사들이 여기에 왔다가도 인차 다른 고장으로 달아나버리군 하였다. 벼슬자리를 하는자들도 이 일대의 관리로 가라고 하면 다들 끔찍해하였다. 그들은 임명장을 받은 다음에도 여기에 오기가 싫어서 이구실저구실을 붙여가며 서울거리에서 빈둥거렸다. 봉건통치배들이 그것때문에 500년동안 내내 골머리를 앓았다고 한다.

나는 김준이 륙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상들은 이 땅을 불모지라고 잘 돌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피땀을 바쳐 이 일대를 혁명의 요새로 만들어보자고 말하였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온성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향밑에 1920년대말부터 김준, 채수항, 오중성과 같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한 고장이였다. 우리는 벌써 그때 조선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백두산지구와 온성을 비롯한 두만강연안의 륙읍일대가 가지는 위치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 일대를 항일혁명전쟁을 위한 전략적거점으로 꾸릴 계획을 품고있었다. 국내혁명을 새롭게 앙양시킬 돌파구도 바로 여기에서 열어놓으려고 하였다. 그 당시 온성지구에서는 100~150명의 청년들이 룡정에 가서 공부하였는데 그들이 방학때마다 고향에 돌아오면 우리와의 련계가 깊은 김준, 오중성과 같은 선각자들의 지도밑에 이 일대에 길림바람을 불어넣었다. 온성에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의 지부들이 조직되여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국내에로 세력을 뻗칠수 있는 좋은 발판이였다. 이 발판을 타고 온성지구에 우리의 사상이 적지 않게 흘러들어갔다.

내가 온성지구에 나오게 된것은 국내에 당조직도 내오고 카륜회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 전반적조선혁명을 확대발전시키자는것이였다.

석현에서부터 우리와 동행한 오중화의 사촌동생이 먼저 우리가 간다는것을 련락하기 위하여 오중성이 있는 풍리동으로 건너갔다.

우리는 온성군 남양대안인 회막동 어느 골안어귀에서 련락을 받고 온 오중성동무와 그밖의 조직성원들을 만났다. 오중성과는 그때 처음으로 상봉하는셈이였다. 형인 오중화보다는 허우대가 크고 성격이 호방한 사람이였다. 오중화는 자기 동생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읊는다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일 화 ◇

교인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면불휴의 헌신의 길에는 교인들의 심정까지도 헤아려주신 사연깊은 사실들도 있다.

청수봉전시간도 잊지 않으시고

주체25(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초겨울 어느날 백두산밀영을 찾은 천도교의 도정이였던 박인진을 만나주시였다.

박인진도정을 따뜻이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인진도정에게 각계각층 동포들을 다 집결하여 거족적인 항일대전을 벌리기 위하여 조국광복회를 내온데 대하여, 반일성전을 승리로 결속짓고 광복을 이룩하자면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단합된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였다.

이윽고 면담이 끝나고 박인진과 한담을 나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녁 9시가 다가오자 전령병을 시켜 맑은 물 한사발을 떠오게 하시였다. 물그릇이 들어오자 그것을 받아 통나무상 한복판에 정히 올려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정에게 청수봉전시간이 되였다고 알려주시였다.

《성지의 물인데 놋그릇대신 법랑그릇에 담아오게 해서 안되였습니다. 놋그릇이 아니라고 나무람마시고 도정님, 어서 청수를 모시십시오.》

그러자 박인진의 두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천도교를 숭상치도 않는 장군님네 군영에 와있으면서 제 어찌 감히 청수봉전을 하겠습니까?》 하며 그는 손님으로서의 례절을 지켜 굳이 사양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도 인륜적평등과 신앙의 자유보장을 밝히고있는데 무신자의 앞이라하여 신앙심이 남달리 강한 도정님이 평시의 법도를 단 한번만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미안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그에게 청수봉전을 거듭 권고하시였다.

결국 박인진도정은 청수를 모시고 앉아 21자의 주문을 외웠다. 그리고 거듭 세번을 외운 다음 물 한모금을 마시고나서 숙연한 기색으로 말하였다.

《백두산곡의 청수가 참 별맛입니다. 우리 나라 조종이 마시던 물로 청수봉전을 하였으니 오늘저녁 일은 평생 두고 잊지 못하겠습니다. 장군님과 같은 무인이 우리 교의 법도를 이처럼 존중해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목사의 탄복

주체70(1981)년 7월 당시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회장이였던 김성락목사가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올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해외에서 그가 벌리고있는 애국적활동에 대하여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면서 조국통일방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해주시였다. 그리고 그를 위한 오찬회도 마련해주시였으며 그 석상에서 식전 기도도 드리도록 권고하시였다.

그러자 목사는 공산국가의 주석이 어쩌면 종교인의 식전기도에까지 관심을 돌리시고 권고하시는데 대해 수수께끼같은 일이 아닌가고 생각하면서 대단히 놀라와하였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공화국의 종교정책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못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조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공화국에서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고있으며 교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있음을 실감하게 되였던 그였다. 더우기 일생을 독실한 신자로 살아온 자기가 조국에 와서도 교도를 지키도록 권고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에 목사는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기에 그는 너무도 감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모심이 어린 기도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본사기자

절대적기준-인민의 요구와 리익

오늘 조국땅우에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건축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하나하나의 창조물마다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이 깃들어있다.

지난 수년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려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 선차적으로 관심하신것이 바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였다.

몇해전 4월 어느날 그이께서는 만수교고기상점에 나오시여 준공을 축하하시였다. 상점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은정에 의하여 일떠선 창조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간직하시고 고기상점건설을 발기하신 그이께서는 건설장을 찾으시여 고기상점은 인민들이 즐겨찾을 곳인것만큼 구매자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사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시공에서 인민성, 친절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비롯하여 주방의 위치와 상점간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상점이 완공되였을 때에는 현지에 나오시여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는것이 당(조선로동당)의 의도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언제 어디서나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이의 다심한 사랑은 끝이 없다.

창전거리의 초고층살림집을 찾으시여서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미세한 바람까지 헤아려보시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여서는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어야 신발생산의 량과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고 하신 그이이시다.

그뿐이 아니다.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시여서는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삭도이기에 먼저 타시고 그 안전성을 확인하시였고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자연재해가 휩쓸었던 지역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도록 온갖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크나 작으나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는 그이께서는 하나의 건물, 하나의 제품을 놓고서도 인민들의 평가를 먼저 알아보시였다.

언제인가 어느 한 기업소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실지 사용자들의 반영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보기에도 좋은것 같다고 하시면서 쓸 사람들이 좋다면 그것은 좋은것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 말씀하신 쓸 사람들이란 다름아닌 인민이였다. 그것을 리용할 인민의 요구가 제품의 평가기준으로 되여야 한다는것, 인민이 좋아하면 좋은 제품으로 되지만 인민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좋은 제품으로 될수 없다는것이 그이의 뜻이다.

바로 이런분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 등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에는 그이의 인민관이 집약되여있다.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는 인민관을 지니신 그이의 령도에 의해 조국땅우에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릉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평양가방공장, 류원신발공장,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미래상점…

도처에 인민사랑의 멋진 창조물들을 수풀처럼 일떠세워주시고 그것을 보아주실 때에는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며 너무 기쁘시여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이.

인민을 제일로 여기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여 조국땅에는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본사기자 변진혁

민족의 부흥과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 무기

오늘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는 진보적인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길을 찾고있다.

그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민족의 부흥과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는 혁명학설이기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나라와 민족의 참다운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그 무엇에도 예속되거나 구속되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공통된 지향이고 요구이며 그것은 오직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어떤 나라나 민족이든지 자주성을 확고히 고수해나가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전진시킬수 있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잃게 되면 자기가 하고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하고싶은 일도 할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는 남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것만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부흥과 발전,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가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을 견지해나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따라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민족적해방과 독립, 참다운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자면 혁명과 건설을 자주성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그리고 매개 나라와 민족들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귀중히 여기며 호상 협조하고 단결하여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는것도 밝히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또한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혁명투쟁에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해당 나라와 민족인것만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실패와 좌절만을 가져온다는것이 장구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사가 남긴 심중한 교훈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환경,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신들이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뿐만아니라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마련함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서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민족의 부흥과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실천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당성은 눈부신 기적과 성과들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조국의 현실이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으며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으로 들끓게 하는 사회주의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참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민족의 부흥과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 가장 힘있는 무기이며 이 위대한 혁명사상이 있는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철

- 공화국의 70년 -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시여

조국인민이 천리마를 탄 기세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던 때인 1962년 10월 미국이 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꾸바를 봉쇄함으로써 세계를 뒤흔든 까리브해위기가 일어났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이때 비겁하게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데로 나갔다.

이에 더욱 오만해진 미국은 남조선에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책동에 매달리였다.

바로 이러한 때 안팎의 정세를 깊은 통찰력으로 명철하게 분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51(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병진로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그에 못지 않게 국방건설에 큰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는 혁명적인 로선이였다.

온 나라 인민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라는 구호밑에 병진로선관철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방력에서 핵심력량인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인민군부대들과 훈련장들을 찾으시였다.

최전연의 대덕산초소를 찾으시여 《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주체53(1964)년 7월 하순 중앙포사격장에 나가시여 군인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으며 이듬해 5월 상순에는 험산준령을 넘으시여 전연의 한 구분대를 찾으시고 적항공륙전대와의 투쟁방법도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주체55(1966)년 2월에는 인민군대의 어느 한 중대군인들과 담화를 하시면서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부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다음해 6월초에는 보병, 포병, 전문병구분대들과 비행구분대들이 참가하는 전투사격을 배합한 구분대공격전술연습과 항공륙전구분대전술연습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한편 인민군부대들에서 군사진지들을 요새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도록 하시였고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국방과학연구기관을 창설하시여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신 그이께서는 해당 연구위원회들을 내오도록 하시고 자립적국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하여 저격무기생산으로부터 시작한 나라의 국방공업은 여러가지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얼마든지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자립적국방공업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가 실현되여 전체 인민이 유사시 총을 메고 싸울수 있게 되였으며 온 나라가 적들의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막대한 자재와 자금, 로력을 돌리면서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강선과 룡성, 은률과 덕천, 락원과 희천을 비롯하여 나라의 공장, 광산들을 찾아 그이께서 걸으신 자욱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주체56(1967)년 1월 어느 한 광산의 일군들을 만나시여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관철을 위해 유색금속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믿음을 안겨주시였고 6월 룡성기계공장(당시)을 찾으시여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며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천리마운동을 처음 벌리던 때와 같이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룡성의 로동계급을 그 투쟁의 앞장에 세워주신 그이이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룡성의 로동계급만이 아닌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는 속에 온 나라에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답보와 침체를 불사르며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졌고 조국은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병진로선의 기치아래 다져진 자위적국방력은 그후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 등 미제가 군사적도발책동을 감행할 때마다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냈다.

본사기자 진룡진

절연물생산에서 혁신을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안주절연물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해가고있다.

최근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절연물의 질을 높일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였으며 도선도포용와니스생산에서 종전의 2개 공정을 한개의 공정으로 줄이는 기술개조를 실현하여 제품의 실수률과 생산성을 높이였다.

뿐만아니라 대용자재를 리용하여 절연와니스생산에서 용매제소비를 절반정도로 낮추었으며 압축기를 기술개조하여 전력소비를 줄이면서도 절연물의 융합, 산화공정시간을 단축하였다.

공장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새 제품개발에도 힘을 넣고있다.

로력영웅이며 지배인인 리금철은 《우리는 새 제품개발사업을 나라에 흔한 자재를 리용하여 만들어내는것을 목표로 정하고 이 사업에 공장일군들부터가 앞장서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세계적으로 10여개 나라에서 생산을 독점하고있는 H급 함침 및 도포와니스를 개발하고 그 생산공정을 확립하는 첨단돌파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지난 기간의 절연물 및 칠감생산과정에 튼튼히 마련된 물질기술적잠재력을 토대로 하여 그 질적수준이 철저히 담보된 차도색용아크릴계칠감도 개발하였다.

이 공장의 로동계급이 평양 326전선공장과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여러 과학연구기지들에 보내준 새 제품들의 질적특성은 실천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하여 앞으로 나라의 전기기계공업발전에서 비약을 안아올수 있는 또 하나의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성능이 높은 새로운 절연물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성과가 확대되는데 맞게 공장에서는 현행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찾는 한편 로동자들의 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도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해당 공정을 맡게 될 로동자들에게 새로운 절연물생산방법을 파악시키기 위한 과학기술학습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다.

안주절연물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림정국

과학기술을 앞세워 걸린 문제를 풀어나간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일부

무궤도전차들이 생산된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은 수도의 려객수송문제를 푸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공장이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곳을 돌아보시면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왔으며 여러가지 형의 무궤도전차를 생산하여 수도의 려객수송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깃들어있는 공장은 오늘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마음먹은대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전변되였다.

공장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음으로써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특히 가공직장, 전동기직장, 전차조립직장, 대수리직장 등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이 기술개건됨으로써 지난 시기에 비하여 무궤도전차의 생산량과 질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였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조종특성이 좋은 전동기를 새롭게 설계제작하여 무궤도전차의 견인력을 1.2배로 높이였으며 자동차단기를 비롯한 각종 부속품들을 만들어 생산에 도입하였다.

뿐만아니라 무궤도전차조립공정을 원격조종화하고 열처리공정과 전해도금공정, 전력공급계통 등을 자동화하였으며 전기절약형 철심유도로와 먼적외선가열장치를 받아들여 종전보다 로력과 전력을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전동기직장 직장장 차승권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며칠어간에만도 여러차례 공장사업을 지도해주시고 몸소 새형의 무궤도전차시운전 운행길에도 오르시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과업들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인민을 위한 더 좋고 훌륭한 무궤도전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올해 신년사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공장의 종업원들은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을 계속 밀고나가면서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으로 전변시킬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지금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새형의 무궤도전차들은 시민들의 이목을 끌며 수도의 거리들을 달리고있다.

새로 조립한 무궤도전차에 대한 성능검사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무궤도전차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다해간다.

로동후 다양한 생활

과학기술보급실에서

하루일을 끝마치고 여러가지 문화정서생활을 한다.

평양가방공장 로동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다양하게 진행해나가고있다. 그것은 5.1절을 맞으며 진행하게 될 체육경기를 앞두고 더욱 활발해지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공장의 재봉1직장과 재봉2직장사이에 벌어지는 녀성종업원들의 바줄당기기훈련이다. 남성들 못지 않게 정확한 자세를 취하고 마음과 힘을 합쳐가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우리와 만난 재봉1직장 직장장 김춘심은 우리에게 지난해 5.1절체육경기때 바줄당기기경기에서 준비직장 남성종업원들에게 비록 지기는 했지만 자기들도 결코 만만치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래 이번 명절경기때에는 두 직장 녀성들의 마음과 힘을 합쳐 남성들을 이겨볼 생각으로 훈련경기를 하고있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장종업원들의 대다수가 녀성들인것만큼 남성들 못지 않게 체육활동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을 잘하여야 생산도 부쩍 오를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한 승벽심은 배구, 탁구경기장에서도, 《모-, 윷-》 하는 윷놀이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준비직장 남성들의 말에 의하면 공장의 녀성들은 참으로 이악쟁이들이여서 웬만큼 잡도리를 하지 않고서는 생산에서도 그러하지만 체육에서도 뒤질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이곳 공장의 녀성들은 일도 잘하지만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열의도 높았다.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인 소나무원에서의 생활 또한 랑만적이고 정서적이였다. 특히 이곳에 꾸려진 여러가지 운동기재들을 리용하여 힘을 키워가는 녀성들의 열띤 모습은 이제 진행되게 될 바줄당기기경기에서 남성들을 이겨볼 녀성들의 심리를 엿보게 하였다. 그리고

5.1절을 맞으며 진행할 직장별예술공연과 체육경기훈련에 여념이 없다.

자기들의 명절날에 내놓을 갖가지 민족료리감들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료리사들의 모습 또한 우리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였다.

우리는 과학기술보급실에도 들려보았다. 여기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과학기술전당에서 보내오는 자료들을 열람도 하고 새 기술에 대한 토론도 하며 경험을 나누고있었다. 특히 새로운 가방도안창작을 놓고 서로 진지한 토론을 거듭하고있는 재봉2직장의 재봉공들인 리송이, 강은옥의 모습이 인상적이였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기들이 창작한 여러가지 형태의 가방천무늬도안과 장식도안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데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로동이후의 다양한 문화정서생활로 하여 종업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체력도 증진될뿐아니라 평범한 재봉공들인 자기들도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여 혁신자로, 창의고안명수로 자라날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공장로동자들의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이 가방생산성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평양교원대학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교원대학은 소학교와 유치원의 교원, 교양원들을 양성하는 후대교육의 원종장이다.

주체57(1968)년 9월에 창립되여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온 평양교원대학은 지난 1월에 훌륭히 개건되여 나라의 교육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번듯하게 일떠선 교사들과 인공잔디를 입힌 시원한 운동장, 다기능홀로 꾸려진 체육관, 과학기술전당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도서관, 멋진 실내수영장과 기숙사 등 모든 교육조건과 환경이 훌륭하게 갖추어진 대학의 내외부는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없이 꾸려져있다.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이 수많은 교육부문 일군들과 학생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는것은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데 있다.

대학안의 모든 교실들은 실천실기를 위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할수 있게 다기능교실로 꾸려져있을뿐아니라 소학교교실, 유치원교실, 교육평가실, 어머니교실 등이 가상교실로 되여있는 어린이지능계발기술보급실도 교육학적인 요구에 맞게 꾸려져있다.

소학교교수방법실기실에서 우리와 만난 2학부 2학년 4반 학생 리은경은 《우리는 지금 가상정황과 실지정황속에서 소학교학생들의 심리를 체험하고있으며 이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정황처리기술을 터득해나가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학생들은 교편물제작실습

서예수업

어린이지능계발기술보급실
(유치원교실)

어린이지능계발기술보급실
(소학교교실)

자연실험교수방법실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는 교수방법을 터득해간다.

실에서 CNC조각기로 여러가지 교편물을 자체로 만들어보면서 교편물제작방법도 배워가고있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실천실기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모의수업과 실지수업과의 차이를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가상교수체험체계를 더욱 완성하며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는 교수방법을 수업에 적용하도록 하는 사업 등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고있다.

대학에서는 교육과학행정관리체계를 리용하여 대학의 교육과 과학사업전반을 지휘조종하고 모든 교육행정사업을 학생들의 학습열의와 학과실력을 높이는데로 지향시켜나가고있다.

이 모든 성과들은 대학안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의 고심어린 노력의 결과인것이다.

이들은 위대성교양을 위주로 하는 5대교양사업에 리용할 프로그람들과 교육지원프로그람들을 개발하고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강령에 따르는 교과서와 참고서집필, 수십개 과목들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실천실기교육의 비중을 높이였다. 분교에서의 복식교수방법, 부속소학교, 부속유치원에 대한 실시간교수참관 및 해보기수업을 통한 정황교육방법 등을 창조한것을 비롯하여 새로운 교수방법창조와 도입에서 이룩한 성과들도 많다.

강좌장 부교수 최학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교육에서 세계를 앞서나갈 야심만만한 의지를 안고 현대교육과학과 교육기술이 도입된 우리 식의 교육방법을 더욱 완성해나가겠다.》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릴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대학의 전변의 모습은 오늘날 과학기술을 떠나 교육사업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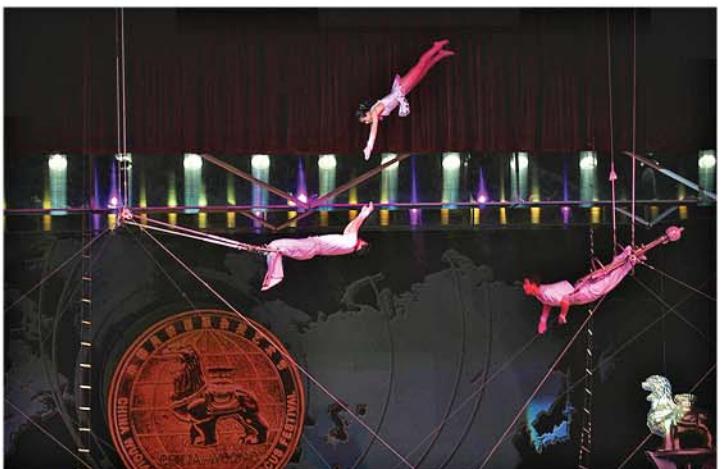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도서관에서

대학기숙사에서

대학에 꾸려진 수영장과 체육관

새로운 교예작품창작을 위해

인기를 끄는 조선의 공중비행교예

알려진바와 같이 공중비행교예는 공화국이 세계패권을 쥔 종목이다.

조국의 국립교예단의 교예배우들이 쟁취한 이 자랑스러운 승리는 오늘도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수십여년간 고수되고있다.

사실 지난 세기 7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 국립교예단의 일군들과 교예배우들은 공중비행교예종목을 한다고는 하지만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하고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그들에게 공중비행교예를 주체적으로 대담하게 개척해나가도록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여러차례 교예단에 나오시여 공중비행작품창작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그들의 작품창작을 힘있게 떠밀어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은 이곳 창작가, 배우들은 종전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여러가지 난도높은 공중비행과 회전동작들을 각이한 방향에서 진행해나갔으며 기교의 련속성을 보장하면서 예술적형상을 높여나갔다.

그들은 이렇게 끊임없는 창작창조과정을 거쳐 짧은 기간에 새로운 공중비행교예종목인 《공중그네비행》을 세상에 내놓게 되였으며 처음으로 주체70(1981)년 11월 프랑스에서 진행된 제5차 루이 메를랭국제교예축전에서 영예의 1등을 쟁취하게 되였다. 이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이전 쏘련과 프랑스, 메히꼬 등 교예가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만 이 종목을 할수 있다는 관례를 완전히 깨버린 하나의 기적이였으며 공화국이 세계무대에서 공중비행교예의 패권을 쥔 첫 승리였다.

이렇게 세계공중비행교예의 강자로 두각을 나타낸 그들은 주체72(1983)년 11월 영국에서 진행된 제8차 세계교예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이미 두차례나 세계선수권을 보유한 미국공중교예배우들과 대전하여 96:7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타승하고 세계선수권을 쟁취하였으며 6개의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련이어 제2차 세계교예올림픽축전과 제9차 세계교예선수권대회, 세계교예계의 올림픽으로 불리우는 제10차 몽떼 까를로국제교예축전에서 1등을 하여 세계공중비행교예의 강자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그들은 세계패권을 고수하기 위한 새로운 작품창작에 진입하였으며 보다 새롭고 난도높은 공중비행교예종목들인 체력교예 《공중3단그네비행》, 《공중전회비행》, 《정복자들》, 《다각비행》, 《다각전회비행》 등을 련이어 내놓아 세계교예무대를 뒤흔들어놓았으며 강자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그 나날 이곳 교예단의 교예배우 김명봉은 《정복자들》에 출연하여 난도높은 공중에서 뒤로 4바퀴돌아잡기를 수행하여 《기니스기록집》에 올랐으며 교예배우 한호성은 《다각비행》에서 공중5회전을 수행하여 김명봉의 기니스기록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기에 주체102(2013)년 12월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공연에서 한호성의 공중5회전을 본 관중들은 말로만 들었던 신비의 공중5회전을 실지 보니 최첨단이다, 조선사람들은 용감하고 강인하며 한다면 꼭 해낸다, 조선의 국립교예단공연은 우리의 넋을 빼앗아갔다, 조선의 공중교예가 세상에서 제일이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끊임없이 최첨단기교동작들을 주체적으로 대담하게 개척하고 완성시켜나가는것, 바로 이것이 이곳 교예집단이 세계패권을 쥐게 하는 열쇠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그들은 오늘도 이것을 실천으로 증명하며 보다 높은 목표에로 줄달음쳐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외국에서 진행한 2인그네
주체59(1970)년

제11차 중국오교국제교예축전에서 최고상인 금사자상을 받은 체력교예 《다각비행》 주체96(2007)년

제16차 중국오교국제교예축전에서 축전최고상인 금사자상을 수여받았다. 주체106(2017)년

축구장의 푸른 잔디우에 마음을 얹고

축구감독 조성옥

체육인들은 누구나 자기의 종목을 사랑한다.

그런 체육인들속에는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축구선수로 선정된 승향심과 10대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된 축구감독 조성옥도 있다.

평양체육단의 축구선수 승향심은 이렇게 말하였다.

《축구는 저의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축구와 인연을 맺은 때로부터 저는 단 하루도 축구공과 떨어져본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축구를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조성옥감독을 저는 선배로, 스승으로 존경합니다.》

승향심선수의 감독인 조성옥은 《사실 축구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재미가 있어 시간가는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줄을 저는 썩 후에야 알게 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개인의 명예보다 조국의 명예가 더 귀중하다는것을 깨닫게 되였고 축구에 모든 운명을 걸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축구공이 굴고 날으는 푸른 잔디우에서 흘러온 훈련과 경기의 나날들은 축구를 사랑하는 자기들의 마음을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승화시켜온 잊지 못할 시간들이였다.

9년전 축구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안은 한 소녀가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안주시청소년체육학교에 들어섰다.

《축구를 하고싶어요.》

남달리 키는 작았지만 초롱초롱한 두눈에 축구를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을 싣고 담차게 소원을 말한 그 소녀가 바로 승향심이였다.

이렇게 축구를 시작한 향심은 모든 훈련을 경기처럼 대하여왔다. 훈련이자 경기였다. 훈련에 림하는 그의 자세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그러한 노력이 있어 향심은 축구선수로서 비록 키는 작아도 반응속도가 빠르고 상대방의 문전에서 돌입이 매우 날카로왔고 경기마다 매혹적인 꼴을 넣군 하여 축구애호가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기였다.

2013년 아시아 14살미만 녀자축구지역별(동부지역)선수권대회는 승향심선수가 출전한 첫 국제경기였다. 그는 조별련맹전단계로부터 결승단계에 이르는 모든 경기들에서 높은 육체기술적능력을 발휘하여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수여받았다. 2015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녀자선수권대회에 이어 2016년 국제축구련맹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도 놀라운 경기장면들을 보여준 그는 2017년 아시아축구련맹 19살미만 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높은 속도와 일대일돌파능력, 천성적인 득점감각으로 팀의 승리에 이바지하였다. 이 경기대회에서 최고득점선수상과 최우수선수상은 다름아닌 향심의것이 되였다.

승향심선수는 지난해 11월 29일 2017년 아시아축구련맹 청년녀자선수상수상자로 선정되였다.

훌륭한 선수의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감독이 있기마련이다.

10여년전 국가종합팀의 주장으로 활약하여 세계축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공격수 3번 조성옥!

주체93(2004)년에 선수생활을 마친 그는 조선체육대학에서 공부하였다. 그리고 주체97(2008)년부터는 평양체육단 녀자축구감독이 되였다.

국제경기에서 우승하고

축구선수 승향심

선수들의 기초기술훈련을 중시한 그는 경기식훈련에도 큰 힘을 넣었다. 특히 매 선수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자그마한 싹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특기동작으로 완성시켜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그는 고심어린 노력으로 2014년 공화국선수권대회 녀자축구경기에서 평양체육단 녀자축구팀을 우승의 단상에 끌끌내 올려세우고야말았다.

제13차 아시아녀자축구선수권대회와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 제14차 아시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쟁취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그의 눈부신 경기전적은 국가종합팀 감독으로서의 지위를 담보해줄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쏟아붓고있다.

선수들에 대한 그의 훈련지도에서 남다른것이 있다면 높은 요구성보다 선수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것이다. 선수들의 사랑과 존경, 믿음을 받으며 그는 선수들과 몸도 마음도 한덩어리가 되여 푸른 주단우를 누벼나갔다.

하여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축구선수권대회 녀자축구경기에서 김윤미, 승향심, 리경향, 장현숙, 리해연선수들이 공격수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하여 1위를 쟁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성옥의 가정에는 축구애호가인 남편과 모란봉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축구를 배우고있는 14살 난 아들이 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조선중앙통신

우웡항비루스물약을 개발한 녀의사

오늘 조국에는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스스로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묵묵히 과학탐구의 길을 걷는 애국자들이 많다.

그들중에는 세계의학계의 공백으로 남아있던 호흡기성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약을 개발함으로써 의학과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선교구역 남신종합진료소 의사 장미란도 있다.

하다면 어떻게 되여 과학연구기관의 연구사도 아닌 그가 이 길에 나서게 되였는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이였다.

당시 주변나라들에서 홍역이 발생하여 그 전염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번져지고있었다.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그 병이 언제 우리 나라에도 들이닥칠지 몰랐다.

장미란은 담당한 세대들을 찾아다니며 예방대책을 세워나갔지만 마음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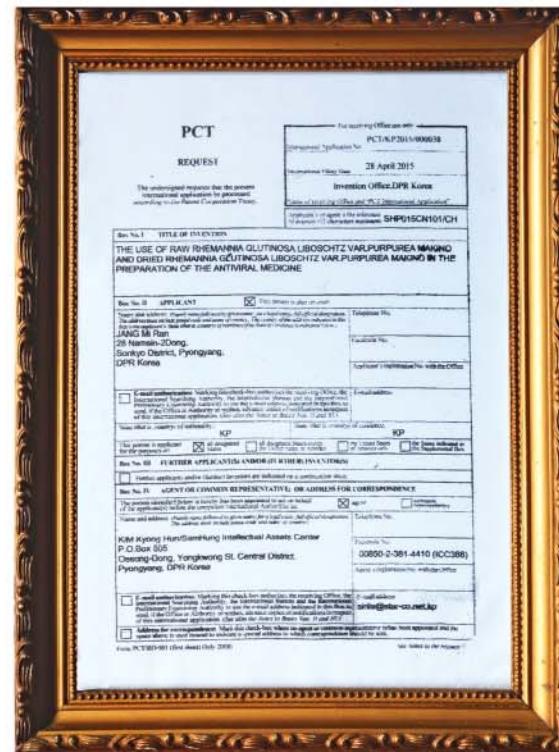
그는 해당 기관들에 알아보며 그 전염병과 관련한 책들을 뒤져보았다.

당시에 출판된 어느 한 현대의학과학도서에서 홍역치료약은 아직 세상에 없다고 명백히 규정한 글을 보았을 때 그는 심장이 뚝 멎는것만 같았다.

장미란

다음순간 《우리 담당선생님》이라고 정답게 부르며 따르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밟혀왔다.

(나라에서 왕으로 떠받드는 아이들을 위함이라면 세상에 없는 약도 만들어내야 한다.)

장미란은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며 고려약재로 홍역치료약을 만들 대담한 용단을 내렸고 미지의 세계에 성큼 뛰여들었다.

그 길은 걸음걸음 애로와 난관뿐이였다. 그는 필요한 고려약재를 찾기 위해 높고낮은 산발들을 오르내렸으며 치료에 가장 적중한 고려약조성과 그 배합비률을 찾기 위해 제약실험, 림상실험을 수백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러나 성공의 싹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실패가 거듭되자 그의 마음도 당황해지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맡겨진 일이나 차분히 할것이지 고생을 사서한다고 장미란을 나무랐다. 자식들도 그에게 불만을 터치기 시작하였다.

그때를 회고하며 그의 맏아들 최충혁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 우리는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왜 하필이면 기약할수 없는 길을 가는가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날밤 그는 온밤 모대기였다. 그러는 장미란의 귀전에는 먼저 떠나간 조선인민군 군관을 하던 남편의 말이 공명되여 들려왔다.

《애국은 말로 하는게 아니요.》

장미란은 일어섰다.

그는 다시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고전의학도서로부터 시작하여 고려의학과 관련한 많은 도서들을 파고들었다.

그러한 그를 보건성,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학연구원 약학연구소를 비롯하여 많은 기관의 사람들이 도와나섰다.

마침내 그는 고려약재인 우웡열매를 가지고 《우웡항비루스물약》이라는 홍역예방 및 치료약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이 약은 신형독감, 대상포진을 비롯한 여러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서도 효과가 나타났다.

주체104(2015)년 7월 도이췰란드 뮨헨종합대학의 어느 한 비루스학 박사는 이 약에 대한 여러가지 객관실험을 진행하고 장미란에게 비루스에 의한 형광세기가 뚜렷이 낮아졌다는 소식을 보내왔다.

오늘 인터네트에는 선교구역 남신종합진료소 의사 장미란이 개발한 우웡항비루스물약이 올라있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PCT

REQUEST

PCT/KP2015/000038

28 April 2015

Invention Office,DPR Korea

SHP015CN101/CH

Box No. I TITLE OF INVENTION

THE USE OF RAW RHEMANNIA GLUTINOSA LIBOSCHTZ VAR.PURPUREA MAKINO AND DRIED RHEMANNIA GLUTINOSA LIBOSCHTZ VAR.PURPUREA MAKINO IN THE PREPARATION OF THE ANTIVIRAL MEDICINE

Box No. II APPLICANT

JANG Mi Ran
28 Namsin-2Dong,
Sonkyo District, Pyongyang,
DPR Korea

KP KP

Box No. III FURTHER APPLICANT(S) AND/OR (FURTHER) INVENTOR(S)

Box No. IV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KIM Kyong Hun/SamHung Intellectual Assets Center
P.O.Box 505
Oesong-Dong, Yonghwong St. Central District,
Pyongyang, DPR Korea

00850-2-381-4410 (ICC388)

smha@star-co.net.kp

우웡항비루스물약은 주체104(2015)년 4월 국제특허를 받았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 김세울외삼촌 앞

혈육의 정을 나눌 그날을 그리며

외삼촌, 안녕하십니까.

조카 오영숙이 멀리 조국에서 문안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신상에 별다른 일은 없었는지요. 지난해 평양에 왔을 때 이따금 부정맥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어떠한지. 이국땅에서 일점혈육도 없이 외로이 지낼 외삼촌생각을 하니 자꾸 걱정만 앞섭니다.

외삼촌, 또다시 봄을 맞고보니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외삼촌과 함께 보낸 즐겁던 나날들이 어제일처럼 눈에 선합니다.

그새 앓지는 않았는가, 어떻게들 지냈는가 하며 형제들의 안부와 가정사를 일일이 물어주고 우리들을 량옆에 끼고 사진을 찍던 외삼촌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함께 형제들이 갖가지 민족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대동강반에서 들놀이를 하던 일도 떠오릅니다.

그때 외삼촌은 노래 《눈물젖은 두만강》을 부르셨지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면서 눈물속에 조국을 그리는 우리 민족의 슬픔을 반영한 그 노래에 외삼촌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봅니다.

어찌 외삼촌뿐이겠습니까. 이국땅에서 살고있는 조선민족 누구나의 비통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조국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따뜻한 삶의 보금자리인것입니다.

외삼촌, 우리 가정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나와 세대주도 그렇고 딸네도 모두 잘 있습니다.

탁아소 보육원인 딸 성애는 맡은 일을 잘하고있습니다. 성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아이들을 맡겼다고 하면서 친부모의 심정으로 그 애들을 돌보고있습니다. 그러한 그를 아이들이 얼마나 따르는지 모릅니다.

사위도 잘 있습니다. 참, 몇달전 2.8절(조선인민군창건일)을 맞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댔습니다. 사위가 영예군인이라고 사위직장에서랑 시안의 여러 기관들에서랑 보약과 약들, 식료품들을 준비해가지고 가정방문을 오지 않았겠습니까. 나라에서는 영예군인이라고 내세워주고 직장과 인민반에서는 늘 관심을 돌려줍니다. 그럴 때면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제도가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군 합니다. 사위도 몸이 불편하지만 이 제도와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며 직장일에 여간 극성이 아닙니다.

가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있는 외손녀 현아는 공부를 잘해 학교적으로 수재로 불리우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름난 과학자가 되겠다고 공부를 얼마나 직심스레 하는지 내 보기에도 그 분야에서 성공할것 같습니다.

영빈동생네도 건강한 몸으로 모두 잘 있습니다. 외삼촌에게 편지를 쓴다는것을 알고는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자기 인사말과 평양에 다시 오시라는 말을 꼭 써넣어야 한다고 몇번이나 당부하였습니다.

아닌게아니라 외삼촌을 다시 만나보고싶은 심정은 나도 같습니다. 물론 조국에 온다는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것은 잘 알지만 외삼촌을 그리는 우리 형제들의 마음이니 꼭 조국에 오십시오.

평양에서 다시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눌 그날을 그려보며 그럼 이만 쓰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남동 32인민반
조카 오영숙올림

지방공업의 덕을 보는 고장

우리는 얼마전 평안북도의 북부내륙지대에 자리잡고있는 삭주군을 찾았다.

뻐스에서 내린 우리가 처음 들린 곳은 읍거리의 어느 한 상점이였다.

상점안에는 기초식품을 비롯한 갖가지 식료품들과 신발, 천, 가구제품들을 사려고온 손님들로 흥성이고있었다. 놀라운것은 상품의 대다수가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자기 지방의 원료를 기본으로 하여 생산한것들이였다.

호기심을 품은 우리에게 한 손님이 삭주군인민들속에서는 군에서 자체로 생산한 소비품들에 대한 호평이 날을 따라 늘어난다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식료공장에서 생산한 된장만 해도 자체로 담근 장이 제일이라던 가정주부들도 찾을 정도로 맛이 좋아 삭주군은 물론 다른 지방들에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있습니다.》

삭주군제1인민병원 과장이라고 자기 소개를 한 손님은 알고보니 미국에서 살고있는 김룡문동포의 조카 김철룡이였다. 우리의 취재목적을 들은 그는 무척 반가와하며 큰아버지에게 고향소식을 전하는 기쁜 일인데 솔선 도와주겠다고 하는것이였다.

하여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삭주식료공장부터 찾았다.

구수한 장냄새가 풍겨오는 기초식품작업반에 들어선 우리는 장생산공정을 돌아보았다.

《우리는 이번에 모두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장생산의 자동화, 콤퓨터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습니다. 결과 장맛이 더욱 좋아져 군안의 모든 주민들 특히 가정주부들이 매우 좋아한답니다. 기쁨에 넘친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를 느끼군 한답니다.》

주진옥반장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를 뒤에 남긴 우리는 당과류작업반을 거쳐 공장직매점에도 들리였다.

직매점에서는 군의 특산인 된장을 비롯한 기초식품들과 당과류들, 각종 음료들 그리고 고사리, 참나물 등 말린 산나물들을 군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팔아주고있었다.

이어 우리는 《합수천》상표가 찍힌 신발의 질이 도적으로도 손꼽힌다는 김철룡의 자랑삼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삭주군어린이신발공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최근년간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을 앞세워 여러 설비들을 실정에 맞게 개조하고 창안하여 신발의 질을 높이였다. 그런가 하면 사용자들의 주문도 받아 신발의 형태와 색갈 등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만들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지배인 김실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축구화, 배구화, 운동화, 어린이털신 등 10종에 수십가지의 신발들이 군의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 주변군들에도 공급하고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맵시있고 질좋은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하려는 열의가 비낀 종업원들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은 우리는 공장을 나섰다.

식료공장과 어린이신발공장뿐만이 아니였다.

두꺼비열강심알약을 비롯하여 자기 단위를 상징하는 《금부령》상표가 붙은 고려약들을 만들어내고있는 의약품관리소며 군건설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건재공장을 비롯하여 직물공장, 가구공장 등 우리가 들려본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과 단위들이 생산으로 들끓고있었다.

지방공업공장들이 이렇게 만가동하니 그 덕을 보는것은 다름아닌 인민들이였다. 비록 제품들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군인민들은 자기 지방의 원료와 자재로, 자기들의 로력으로 창조한 열매들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있었다.

우리는 지방공업공장들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쳐 자체로 생산하는 인민소비품들의 가지수를 더 늘이고 질을 개선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차게 투쟁하는 군인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더 좋아질 삭주군의 래일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지방원료로 생산한 고려약을 놓고

삭주군어린이신발공장에서의 신발생산

영웅삭주고급중학교의 생물실험실에서

로교원의 추억

지난해 8월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원 지도교원 류순렬은 은정어린 일흔번째 생일상을 받아안았다.

생일상을 받아안고 가족들과 제자들의 축하를 받는 공훈과학자이며 후보원사 교수 박사인 류순렬의 눈앞으로는 지나온 나날들이 영화화면처럼 흘러갔다.

어린시절 일본땅의 조선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으며 처음으로 우리 말과 글을 배우던 때부터 시작하여 12살에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남동생과 함께 1차로 조국에 귀국하던 일이며 중학교와 평양고등물리전문학교(당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무료로 교복과 학용품을 공급받으며 배움의 나래를 펼치던 나날들…

그 나날 그는 어머니와도 같은 조국의 사랑을 폐부로 절감하였다.

대해같은 그 은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저 그는 공부를 직심스레 하였다.

하여 그는 대학기간에만도 5개의 외국어를 소유하였고 대학적인 인재로 동무들속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되기도 하였다.

주체60(1971)년 대학을 졸업한 후 당시 전자계산기연구소의 연구사로 일하면서 그의 실력은 뚜렷이 과시되였다. 그가 자체의 힘과 지혜로 만든 사무용전자계산기, 소형콤퓨터, 극소형콤퓨터 등은 당시 전국의 대학들에서 널리 리용되였다.

그후 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지만 그는 자만을 몰랐다. 언제나 진취적으로 사색하고 연구사업에 달라붙었으며 세계적인 콤퓨터발전추세에 맞게 극소형콤퓨터, 콤퓨터회로, 대면부기술을 비롯한 새로운 학과목들도 개척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후보원사 교수 박사 류순렬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과 실습 등으로 시간이 바쁜 속에서도 그는 많은 기종의 콤퓨터개발에서 얻은 새로운 방식과 회로리론을 정리한 과학적론문을 내놓아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추억의 갈피에는 뜨거운 격정으로 가슴설레이던 날들도 있다.

새 세대교원들의 강의준비를 도와주는 류순렬

주체85(1996)년 8월 어느날 대학에는 새로운 다매체프로그람을 작성할데 대한 과업이 나섰다. 대학에서는 높은 실력을 소유한 류순렬을 책임자로 하는 연구조를 뭇고 즉시 연구사업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하루빨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세계적수준의 프로그람을 작성하기 위해 밤낮이 따로없이 사색과 탐구를 기울이였다.

하지만 여러명이 자기식대로 부분프로그람을 작성한것을 종합하고 합리적으로 련결하자니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거듭되는 실패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끝끝내 우리 식의 프로그람을 만들어내고야말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들이 만든 프로그람을 보시고 거듭 만족해하시였다.

그때만이 아니였다.

주체97(2008)년 1월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학장을 하던 그는 제18차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에 출품된 기계번역프로그람들에 대해 위대한 장군님께 설명을 해드리는 영광도 지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일흔번째 생일상을 받아안고

그의 설명을 주의깊게 들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양한 프로그람언어들을 구사하시며 문자인식프로그람에 대한 문제, 우리의 프로그람기술이 하루빨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실지 도움을 줄데 대한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그날 그이의 교시를 심장에 새긴 그는 그후 나라의 프로그람기술발전과 후대교육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일흔번째 생일상도 보내주시였으며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여러 대회들에 대표로도 내세워주었다.

오늘 그의 두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콤퓨터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언제인가 그는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사람은 추억속에 산다고 한다. 내 한생에서 제일 잊지 못할 날은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였던 날이다. 지금도 그 순간을 추억하면 절로 새힘이 솟고 온몸에 청춘의 활력이 넘쳐난다.》

로교원은 지금 후대들을 위한 참고서, 도서집필에 여념이 없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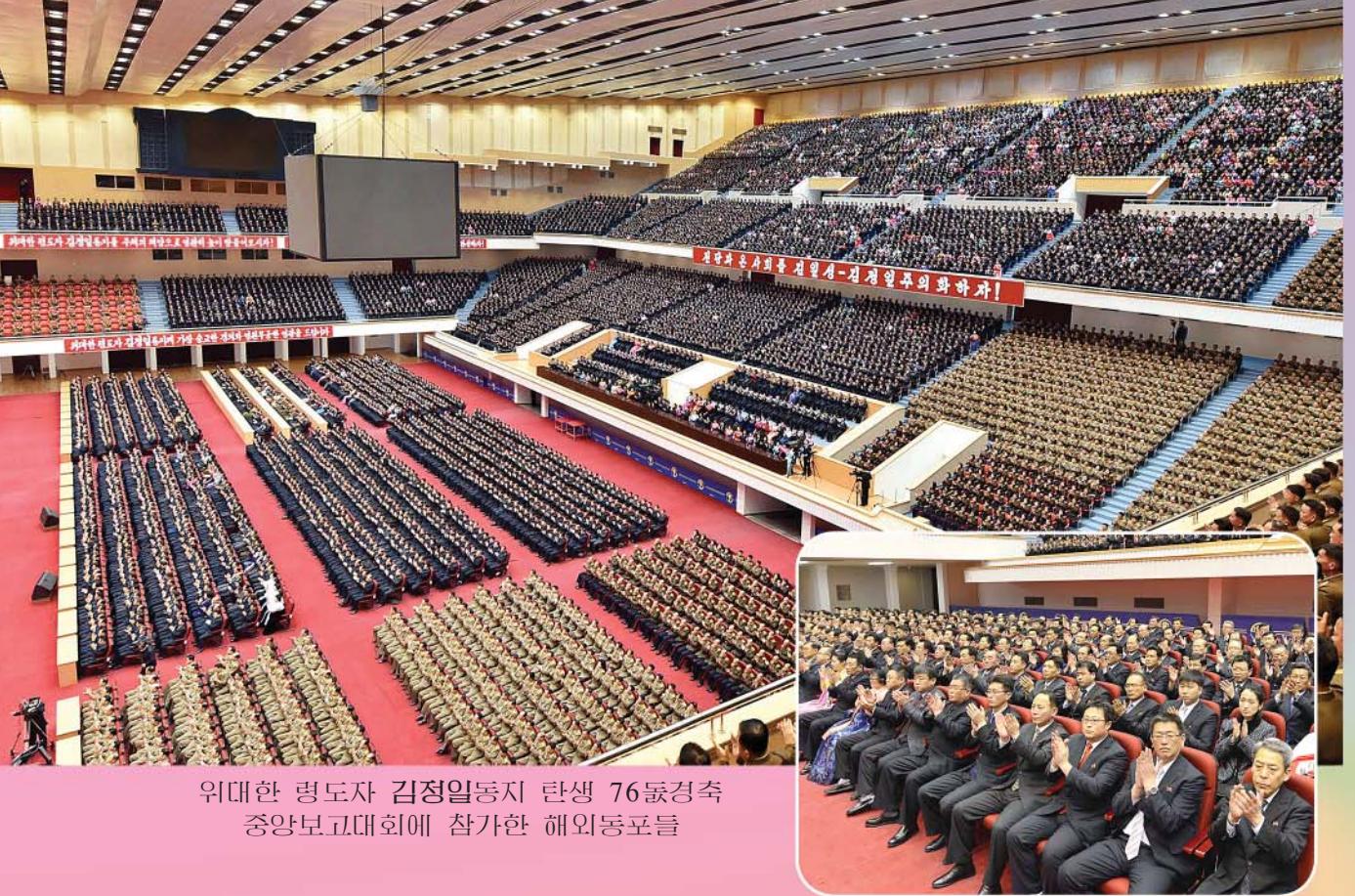
상식

룡무늬띠고리

룡무늬띠고리는 석암리9호무덤에서 나온 순금으로 만든 룡무늬가 새겨진 허리띠고리이다.

이 띠고리는 순금판우의 테두리를 가는 금실로 노끈처럼 꼬아 둘러치고 그 안쪽으로 금줄을 돌린 다음 그사이는 금줄로 톱날무늬를 돌린 장식으로 되여있으며 띠고리표면에는 금줄과 크고작은 금싸락으로 표현한 7마리의 룡과 구름무늬가 새겨져있다.

중간부분에는 약 40개의 비취옥이 박혀있는데(현재 남은것 7개) 이러한것으로 하여 띠고리전면이 눈부시게 빛난다.

띠고리에서 기본무늬를 이룬 7마리의 룡의 형상은 마치도 잘 그려진 그림마냥 생동하다.

몸뚱이의 가운데부분을 굵게 하고 금싸락도 큰것을 박았으며 대가리와 꼬리에 이르면서 점차 작은 금알을 박은것으로 하여 그 조각적효과도 크며 금싸락의 황금색과 비취옥의 맑은색에서 안겨오는 색채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7마리 룡가운데서 주목을 끄는것은 초생달모양의 고리밑에 있는 룡과 아래부분 가운데에 있는 룡이다.

이것은 고조선유민들인 락랑국사람들이 창조한것으로서 그 독창성과 우수성으로 하여 조선민족의 높은 귀금속세공술을 보여주고있다.

*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76돐경축
중앙보고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들

고국방문

환희와 격정의 나날들

-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

제22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았다.

최수봉제1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대표단성원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한평생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드린 동포들은 울음홀과 렬차보존실 등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광명성절경축 예술공연 《장군님 념원 꽃피는 내 나라》를 관람하고 2월의 밤하늘가에 터져오르는 경축의 축포를 뜨거운 환희와 격정속에 바라보았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된 여러 경축행사들에 참가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김정일**화명명 30돐을 맞으며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제22차 **김정일**화축전장도 돌아보았다. 위인칭송의 꽃바다를 이룬 축전장에서 최수봉제1부의장은 감상록에 즉흥시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남기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한 동포들은 이역땅에 살고있는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고 애국의 길에 세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리훈동포는 《이번 방문의 나날 우리 대표단성원들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면서 조선민족이 얼마나 위대하고 걸출한 령도자를 수령으로 받들어모시여왔는가를 더욱 뜨겁게 느끼였다.》고 말하였다.

류경김치공장을 돌아보았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김정일화는 영원히 만발할것이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수없이 피여나고있다.

그 하많은 꽃들은 어느것이나 다 자기나름의 모양과 색갈, 향기를 가지고있다고 하지만 나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제일 사랑한다.

김정일화는 베고니아과의 여러 꽃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탐스러우며 열정을 상징하듯 눈부시게 밝은 붉은색을 띠는 꽃이다.

일본의 원예가 가모 모또데루는 20여년간 온갖 심혈과 정력을 기울이여 육종해낸 자기의 이 꽃에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분의 존함을 모시려는 자기의 평생의 소원과 시대의 지향을 담아 《**김정일**화》라고 이름지었으며 주체77(1988)년 2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그이께 삼가 올리였다.

지난 2월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단장으로 조국을 방문한 기회에 나는 **김정일**화명명 30돐을 맞으며 진행된 제22차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보았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해째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하였지만 올해처럼 규모에 있어서나 참가단위수에 있어서 그토록 이례적인 축전은 보지 못하였다.

조국의 크고작은 단위들과 가정들에서, 지어는 학생소년들까지도 온갖 정성을 다하여 계절을 앞당겨피운 **김정일**화를 전시하였으며 대양과 대륙을 넘어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진보적인사들이 **김정일**화를 보내여왔다.

우리 재중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보내여온 **김정일**화가 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전시대는 위치적으로는 축전장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있었으며 그 규모도 다른 단위에 비할바없이 컸다.

나는 이 하나의 사실만을 놓고서도 조국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념원인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는 길에서 우리 해외동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한번 깊이 깨닫게 되였다.

감상록에 나는 즉흥시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남기였다.

……

김정일화 **김정일**화
불멸의 꽃 **김정일**화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장군님 거대한 업적
천추만대에 길이 전하려
태양의 꽃으로 피여났는가

아! 불멸의 꽃 **김정일**화
장군님을 우러르는
우리모두 충정의 마음담아
금수강산 3천리 강토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붉게붉게 피여나라
더 아름답게
영원토록

불세출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앞으로도 해외동포들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만발할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 최수봉

인상기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이번에 나는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말을 타면서 고국인민들이 누리는 문명이 과연 어떤 경지에 있는것인가를 직접 체험해보았다.

몇해전 로씨야에서 나는 텔레비죤과 인터네트를 통해 고국에 멋진 승마구락부가 일떠섰다는 소식을 보고 들은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말을 꼭 타보리라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기회가 차례질줄이야.

미림승마구락부를 참관하는 과정에 나와 동포들은 실내승마훈련장에서 말을 타보았다.

처음에는 좀 긴장되였다. 그러나 말을 타고 천천히 승마주로를 몇바퀴 돌고나니 고삐를 쥐고 한껏 달려보고싶은 생각이 불쑥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렇게 한창 달리고 난 뒤 말에서 내린 나는 미림승마구락부에 대해 더 알고싶어 안내원에게 다가갔다.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는 미림승마구락부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에 의하여 실내훈련장은 물론 야외승마주로, 야외휴식터, 수의병원과 종축연구소까지 갖춘 종합적인 대중승마기지로 꾸려지게 된데 대하여 다소나마 알수 있었다.

내가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승마의 기쁨을 맛보며 보낸 시간은 비록 길지 않았다. 하지만 고국에 일떠선 현대적이며 훌륭한 모든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이 평범한 인민들을 위하여 마련되여있다는 사실을 직접 느끼게 된 기회로 되였다.

로씨야 깜챠뜨까주고려인통일련합회
회원 김범진

평양화장품공장을 돌아보고

누구나 녀성이라면 자기의 미를 가꾸기 위해 화장품에 은근히 관심을 두기 마련이다.

이제는 60살이 다 되였지만 나도 역시 녀성인것만큼 아직도 화장품에 대한 호기심이 없지 않다.

지난해 우리 딸이 내 생일날에 《은하수》화장품을 한조 사주었는데 나는 로화방지에 좋은 작용을 하고있는 그것을 늘 애용하고있다.

조국상품을 판매하고있는 중국의 상업봉사망들에서도 《은하수》화장품의 수요가 높다.

나는 이번 조국방문기간에 우리 대표단이 평양화장품공장도 참관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간을 마음속으로 기다려왔었다.

제품견본실에서 나는 《은하수》상표를 단 수많은 화장품들을 보게 되였다. 화장품의 질은 물론 모양과 형태도 높은 수준이였다.

나는 안내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공장에서 지난 2년동안에 치료용화장품, 분장용화장품을 비롯한 수십종의 화장품을 새로 개발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어떻게 되여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들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여러 종류의 화장품들을 생산해낼수 있게 되였는가도 잘 알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공장을 찾아주시고 그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과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어 공장은 지금과 같이 비약적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다.

단순히 녀성적인 호기심을 안고 평양화장품공장을 참관하였던 나는 조국인민들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주시기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이 가슴에 가득 새겨안게 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련시지부 사무장 윤영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과학기술 (1)

슬기롭고 지혜로운 조선민족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도 과학과 기술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는 무엇보다 천문기상학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것이다.

15세기에 혼천의, 간의, 앙부일구를 비롯한 15종의 천문관측기구가 제작되고 자격루와 같은 자동물시계들이 만들어져 일식과 월식현상을 관측하고 시간을 측정하는데 리용되였다. 그리하여 1519년에는 우리 나라에서 매우 보기 드문 극광현상도 관측할수 있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천문학발전에서 주목되는것은 천문도의 작성과 력법에 관한 책인 《칠정산》 내외편이 편찬된것이다. 《칠정산》 내외편에서는 천문계산에 필요한 상수, 수표계산방법을 제시하고 해와 달의 운동, 일식과 월식의 예보, 행성운동에 대하여 쓰고있는데 여기서 1년을 365. 242 5일로 정하고있는것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있는것과 근사하다.

17~18세기에 이르러 혼천의, 해시계를 비롯한 천문관측기구들이 더욱 발전하고 천문계산을 간편하게 하는데 매우 편리한 계산기구로서 량도의가 창안제작되였다.

특히 조선봉건왕조 후반기 실학자들에 의해서 천문학이 널리 연구되였는데 그들은 우주의 구조, 지구의 형태 및 운동, 혜성의 본질 등을 새롭게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가치있는 견해들을 내놓았으며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기상학은 직관과 경험의 단계로부터 점차 과학적인 체계와 내용을 갖춘 과학으로 발전되여갔다.

144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인 측우기가 창안리용되였다. 이때 발명된 측우기는 높이 2자(약 40㎝), 직경 8치(약 16㎝)의 쇠로 만든 둥근 통모양으로서 종래의 땅속에 스며드는 비물의 깊이를 재는 강우량측정방법과는 달리 그안에 고인 비물의 높이를 가지고 강우량을 정확히 측정할수 있는 관측기구였다. 이것은 1639년 이딸리아에서 만든 기구를 가지고 강우량을 측정한것보다 근 200년 앞선것으로 된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또한 하천수위(물높이)를 측정하는 량수표와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하기 위한 풍기대가 창안리용되였다.

기상리론측면에서도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18세기의 실학자 리익(1681년-1763년)은 눈의 결정구조에 대한 새로운 리론을 내놓았으며 다른 실학자들에 의하여서도 우박과 얼음, 눈, 비, 해양현상, 온도 등에 대한 진보적인 견해들이 제기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는 다음으로 의학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것이다.

이 시기 의학발전에서 중요한 성과는 1433년에 《향약집성방》(85권)이, 1445년에 《의방류취》(365권)가, 1610년에 《동의보감》(25권)이 편찬된것이다. 《향약집성방》은 959종의 질병에 대한 1만 706종의 처방과 1 479종의 침구법 그리고 약초와 그 조제법을 개괄서술하였으며 《의방류취》는 당시까지 세상에 알려진 150여종의 의학책의 내용을 분류종합하여 개괄하였다. 《동의보감》은 조선과 외국의 대표적인 의학서적 500여권을 리용하고 저자 자신이 축적한 림상의학경험을 종합하여 조선사람의 생활, 풍토, 체질에 알맞는 치료방법을 제시하였다.

법의학도 일정하게 발전하여 1438년에는 《신주무원록》이 발간되여 각종 사망원인을 판단할수 있게 하였다. 17세기에는 침구료법을 체계화한 《침구경험방》이 나옴으로써 우리 나라 의학은 또 한걸음 전진하였다.

19세기말 이름있는 의학자였던 리제마(1837년-1900년)는 새로운 학설인 4상의학학설을 담아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는 다음으로 출판인쇄기술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온것이다. 이미 고려시기에 창조되고 발전한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기술이 이 시기에 와서는 그 규모가 훨씬 커지고 기술수준도 높아졌다. 1403년에는 활자제작 및 출판인쇄기관으로서 주자소가 설치되였으며 그후 동활자, 연활자, 철활자 등 여러가지 활자들이 수많이 주조되였다. 1403년에는 불과 몇달사이에 약 10만개의 활자를 부어냈고 1434년에는 두달사이에 20여만개의 활자를, 1484년에는 30만개의 활자를 각각 부어냈다.

1436년에 창안된 연활자는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것이였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부교수 주성철

야 화

보물지팡이

때는 고려 말엽의 어느해 가을이였다.

예로부터 봄은 녀자들의것이고 가을은 사내들의것이라고 전해온다. 아마 자연의 리치로 볼 때 봄에는 녀자들의 육체가 피고 가을은 남자들의 팔다리에 기운이 용솟음치는 계절이라는 말일것이다.

부래산속에서 숯구이를 하는 로총각 언득은 산속에서 긴긴 가을밤을 외톨로 맞고보내야 하였다.

딸가진 집에 몇번 선보러갔댔지만 언득이의 궁한 처지를 알고있는 녀자집들에서는 그를 쫓아보내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언득이는 아예 장가를 가지 않을 맘을 먹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김의 맹세였다.

어느날 밤 이경쯤 되였을 때 밖에서 녀자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뜰에 웬 녀인이 죽은듯이 사지를 늘어뜨리고 쓰러져있었다. 삼단같이 풀어헤쳐진 머리며 여기저기 찢긴 옷, 처녀인지 로인인지 그 나이를 도무지 가늠할수 없었다.

그는 녀인을 방안에 들여다 눕히고 인중을 문대주고 손발도 씻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녀인이 정신을 차렸다. 그는 구원받은데 대한 고맙고 반가운 기색은 조금도 없이 생뚱같은 소리를 하는것이였다.

《어머니는 어디에…》

언득은 두눈을 지릅뜨고 마주보며 퉁명스레 대꾸했다.

《무슨 녀인이 또 온단 말이요.》

처녀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고오-》하며 한바탕 곡성을 터친 후에 사연을 말하였다.

부래산에서 30~40리 떨어진 먹골이라는데서 사는 가난한 집의 딸인 처녀는 아버지가 자꾸 앓자 오늘 새벽에 어머니와 함께 량천사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집을 떠났었다. 그러다가 이들모녀는 승냥이무리와 맞다들었다. 처녀가 한참 뛰다가보니 어머니가 없었다. 그는 밤이 깊도록 정신없이 어머니를 찾아 헤매다가 불을 보고 찾아온것이였다.

언득은 이 처녀를 남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슬며시 《나하구 함께 여기서 사는게 어떻수? 이렇게 만난것두 연분이겠는데… 아버님병은 내가 숯을 팔아 고쳐드리겠소.》라고 말하고는 혼자 피식 웃었다. 그러나 처녀의 대답은 안된다는것이였다.

언득은 매일 처녀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 산판을 헤매였지만 찾지 못하였다. 언득은 처녀에게 남을것을 권고했지만 이를데없는 외통배기인 처녀는 안된다는 말뿐이였다.

언득은 단념하는수밖에 없었다. 밖에서 불을 피우고 마지막 밤을 보내던 그는 펀뜩 떠오르는 한 생각에 무릎을 탁 치며 싱긋 웃었다.

그리고는 처녀에게 산에 올라왔던 사람들은 산신령님에게 지성을 드리고 산을 내려야 하는데 미리 대주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만약 그것을 잘못하면 산신령님이 온몸을 쓰겁게 만들어놓는다고 하였다.

처녀는 산신령에게 지성을 드리고 자기 몸의 여기저기를 손으로 만지며 맛보았다. 달작지근하였다.

언득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산을 내릴 때까지 마음을 놓으면 안된다고, 스스로 헤아려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음날 아침 처녀는 산을 내리느라 걸음을 떼였으나 마음은 자꾸만 총각이 있는 산막쪽으로 향했다. 지팡막대기까지 깎아 쥐여준 그의 마음이 헤아려져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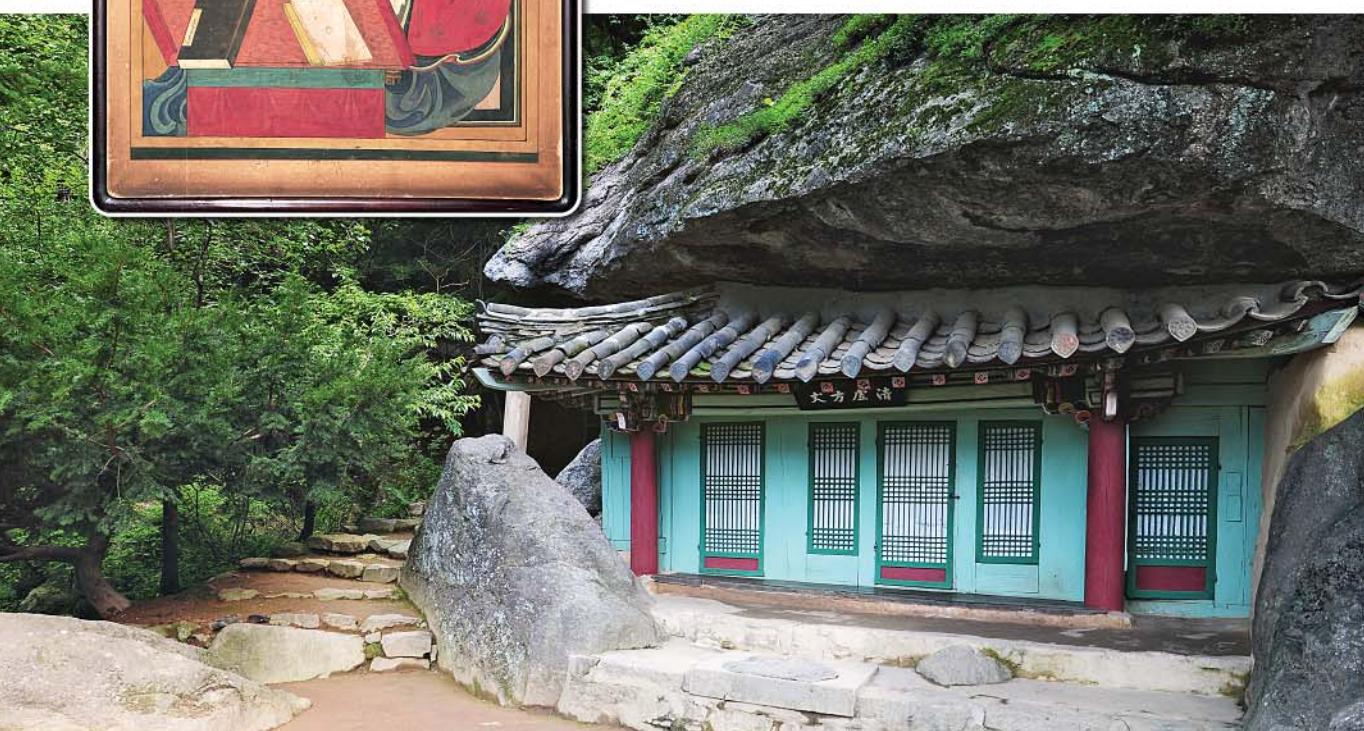
산을 거의 내리게 되였을 때 그는 총각의 당부가 떠올라 몸을 가릴 길옆의 풀숲에 뛰여들어 손으로 몸의 여기저기를 다치고 맛을 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변이랴. 온몸이 곰열을 깨문듯 쓰겁기때문이였다.

처녀는 산으로 다시 올라가 로총각 언득에게 사연을 말했다. 총각은 나같은 사람에게 쓰면 어떻구 달면 어떻는가고 하면서 그를 안해로 맞아들이였다.

후에 안해가 이 일에 대하여 묻자 그는 《신령은 무슨 신령. 다 그 지팡막대기때문이지. 소태나무지팽이가 아무렴 쓰지 않고 달가. 나에겐 그게 보물지팽이지.》라고 말하였다.

* * *

평안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6)

- 금강암 -

평안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가던 우리는 묘향산의 금강암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불교가 국교로 되여있던 고려에서는 전국각지에 절간을 지어놓고 불교를 선전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을 타고 묘향산에도 수많은 암자들이 세워졌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금강암입니다.

금강암은 묘향산의 하비로골어구에서 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산허리의 암굴속에 자리잡고있습니다.

이 절간은 고려말에 세운 매우 작은 암자입니다.

온돌방은 두칸이지만 매우 좁기때문에 부처를 두고 겨우 한사람이 앉아 도를 닦을수 있었습니다.

금강암은 큰 바위를 지붕삼아 굴속에 지은 보기드문 절간입니다.

건물은 앞면 3간(7.15m), 옆면 3간(4.2m)입니다. 방과 부엌, 골방은 모두 바위밑에 들어가있고 앞면 2간분의 퇴마루만이 굴밖으로 나와있습니다.

처마밑에는 2개의 기둥이 보를 받들게 되여있고 기둥머리에 2단의 제공(조선식건물에서 첨차와 직각이 되게 짜올린 두공부재)만을 간단히 덧붙였습니다.

이 암자는 건축공학상 특기할만 한것은 없으나 바위밑에 지은 건물이라는 점에서 희귀합니다.

지금도 묘향산에 가면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을 자랑하며 암굴속에 자리잡은 금강암을 볼수 있습니다.

금강암은 오늘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여 묘향산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송대혁

금강암에 있는 서산대사의 화상과 금강암외부

사화

《10년을 마저 채워라》

《호(석봉의 이름)야, 이제는 너도 그만하여라.》

불꺼진 새까만 방안에서 떡퉁구리를 도마우에 길게 늘여놓고 또닥또닥 썰고있던 어머니의 음성이였다.

《예, 그럼 불을 켜주세요. 어머니!》

뒤날에는 석봉이란 필명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한호는 계묘년(1543년)에 났으니 이때에는 겨우 열여섯살이였다.

그는 붓을 놓았으나 저으기 초조한감이 들었다.

어머니는 손더듬으로 솔광가치에 불을 달아 곧 등잔에 불을 켰다.

삽시에 환히 밝아진 방안에서 아들은 어머니의 떡개를, 어머니는 아들의 글씨를 서로 엇바꾸어 들여다보았다.

《야, 어머닌 하나가 열같고 열이 백같고 참 신통합니다.》

《네가 나보다 월등하다고 해도 모르겠는데 이게 됐느냐? 어서 되돌아가 처음 기약한 10년을 마저 채워라.》

한호는 아뜩한 생각이 들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도 나더러 글을 그만큼 배웠으면 넉넉하다고 하시면서 집에 돌아가 어머니나 잘 모시라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글씨에서는 나를 따를 사람이 별로 없겠다고 하셨는데 어머닌 괜히…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걸 생각하면… 그리구 어머닌 내가 보고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면서 10년을 채우기 전에는 얼씬하지 말라고 하였다.

일찍 남편을 여윈 한호의 어머니는 남편몫까지 다하여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보자는 결심이였다.

바로 7년전 그는 남편이 생전에 남긴 가냘픈 가산마저 죄다 팔아 아홉살잡이 외아들에게 지어주면서 10년간을 서로 만나지 않기로 단단히 약속하고 인편에 본가집켠 친척벌되는 글방 훈장댁으로 멀리 떠나보냈던것이다.

집에 남은 어머니는 고생을 락으로 삼고 떡장사를 하면서 멀리 공부하러간 아들의 뒤바라지를 해왔었다.

그러한 어머니가 한번 마음먹은것을 되돌릴리 없었다.

한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아무래도 글공부를 하러 집을 떠나야 하였다. 그럴바에는 전날의 스승을 다시 찾아갈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름난 명필을 찾아가 글씨를 더 배워 여직껏 은근히 품어온 소원을 한번 풀어볼 생각이 들었다.

한호는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썼다.

당시 나라에서는 신희남이 제일 글을 잘 썼다.

그는 어머니가 꺼내주는 명주 한필을 받아가지고 로자를 쓰면서 한성으로 올라갔다.

신희남은 한호를 자기 집 사랑방에서 묵게 하면서 그의 글씨재주를 알았다. 그리하여 중요한 문서들을 그에게 씌였다.

이때로부터 한호는 석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났다.

제자가 스승을 앞선다고 신희남에게서 글씨를 배워 3년이 되여올무렵에는 한석봉이라는 이름이 궁중에도 알려졌다.

그후 몇년이 지나 그는 25살에 과거급제를 하고 이어 어느 한 고을의 군수로 임명되였다가 다시 뽑히여 승문원의 사자관(외교관계의 문서를 정리하는 벼슬)이 되였다. 지체가 낮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여난 그가 이러한 벼슬길에 오른것은 갓 왕위에 오른 선조왕이 그의 글씨재주를 매우 아끼던 나머지 《오묘할손, 신선의 조화인듯》이라는 글발을 써보내면서 관직에 추천하였기때문이였다.

한석봉은 그 당시 다른 나라에 사신이 갈 때마다 글쓰는 직책을 가지고 따라가군 하여 해외에도 그의 글씨가 알려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선에 왔던 여러나라 사람들도 한석봉의 글씨를 얻어가지고 돌아가는것을 큰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였다.

한석봉이 남긴 일화는 참으로 많다.

그는 1605년에 62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글씨는 개성의 선죽교비를 비롯한 수많은 비문에 새겨졌으며 그의 글씨본보기책으로는 《석봉서법》과 《석봉천자문》 등 여러 책이 오늘까지 전해내려오고있다.

* * *

맑고 아름다운 음색을 가진 해금

안녕하십니까. 동포여러분!

우리는 동포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는 《민족의 향기》란에 민족악기 해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금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고보니 우리의 귀가에 지난 2월 광명성절을 맞으며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된 재일본조선인예술인들의 공연무대에서 금강산가극단의 량성희배우가 연주한 소해금독주 《내 사랑하는 꽃》이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그의 연주를 감동깊게 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운영화동포는 중국에도 해금과 비슷한 호궁이라는것이 있지만 역시 해금이 맑고 아름다운 음색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그것을 소개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탁을 받고 이번호에 선조들이 태고적부터 이 땅에서 창조하고 세세년년 발전시켜온 고유한 민족악기인 해금에 대해 이야기를 펴나가려고 합니다.

해금은 고조선시기부터 사용되여온 조선의 고유한 민족현악기인데 일명 호금 또는 계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해금은 구조가 간단하지만 맑고 아름다운 독특한 음색과 형상력이 풍부한 악기입니다. 고조선사람들이 만들어쓴 해금의 초기형태는 소고와 같은 공명통과 2개의 줄을 련결한 지판으로 되여있으며 그 연주법은 참대쪽을 두 현사이에 넣고 그어서 소리를 냈습니다. 민간에서 보급되여오던 해금은 고려때에 이르러 계금이라는 이름으로 궁중음악에도 리용되였으며 바로 이 시기에 두 현사이에 참대쪽을 넣고 그어당겨 소리를 내는 현악기로부터 말총을 메운 활로 마찰시켜 소리를 내는 찰현악기로 개조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해금에 대한 리해를 더 깊이 하기 위해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민족현악강좌 교원인 인민배우 신률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전과실에서 개별강의를 하고있었습니다. 강의를 받는 사람의 낯이 익어 자세히 보니 바로 앞에서 말한 금강산가극단의 해금연주가 량성희배우였습니다.

그는 지난해에 2.16예술상입상자로 되였으며 일본 도쿄에서 성대한 독주회도 열었던 관록있는 배우입니다.

신률선생님은 마침 강의를 마치려던 참이였다고 하면서 지금 일본에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속에서 해금바람이 불고있는데 그들이 리용하는 악기는 모두 평양악기공장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악기제작기술자들이 만든것이라고 덧붙이였습니다.

그는 해금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악기이지만 쐑소리를 내거나 악기자체의 기능상 및 주법상결함도 가지고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해금은 1970년대-1980년대에 개량되면서 소해금, 중해금, 대해금, 저해금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되였으며 이것은 해금속악기군을 이루었습니다. 해금속악기들은 박모양의 둥그런 울림통이 달린 형으로서 형태가 비슷하지만 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 악기들은 굵기가 서로 다른 4개의 금속줄을 가지고있으며 그 줄맞추기는 5도관계로 합니다. 조성은 모두 씨내림(씨♭)으로 되여있습니다. 개량된 해금속악기들은 원래의 고유한 음색을 보존하면서도 쐑소리가 없는 맑고 부드러운 울림을 가지게 되였고 음량도 훨씬 커지고 음역도 넓어졌으며 연주성능과 표현능력도 매우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해금속악기들은 민족관현악에서 기본악기군의 하나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주체적배합관현악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소해금은 해금속악기중에서 제일 높은 음구를 담당하는 고음악기로서 민족적정서가 풍기는 아름다운 음색을 가지고있으며 연주법이 다양하고 형상력이 풍부하기때문에 독주에 많이 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동포여러분, 인민배우 신률선생님이 연주한 유명한 소해금독주곡들인 《울지 말아 을남아》, 《종다리》, 《회양닐리리》를 듣고싶은분들은 밤 11시 평양방송에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해금연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백전로장 명림답부

명림답부(67년-179년)는 고구려의 장군이다.

연나부출신인 그는 165년에 차대왕의 폭정을 반대하여 정변을 일으키고 신대왕을 올려앉혔다. 그 공로로 하여 패자(최고벼슬등급)를 받고 국상으로 임명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고구려군대를 총지휘하게 되자부터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고조선의 옛땅에서 후한강점군을 몰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바로 그러한 때인 172년 12월 후한은 고구려에 대한 대규모적인 침공을 감행하였다.

전쟁 초기 고구려봉건통치배들은 후한이 대군으로 수도를 향해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받고 방어대책을 토의하였는데 이때 많은 관료들은 유리한 지세를 리용하여 싸울것을 제기하였다.

명림답부는 한나라군사들이 저들의 수적 및 물질기술적우세를 믿고 속전속결의 전술로 나오고있는 조건에서 적은 군사로 한나라의 많은 군사와 대결하는것은 무모한 군사행동으로 된다고 하면서 성을 굳게 지키고 들판을 비워두는 전술(청야수성전)을 쓸것을 주장하였다.

왕은 명림답부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성을 굳게 닫고 완강하게 방어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자 적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였고 드디여 퇴각하게 되였다. 이때를 기다리고있던 명림답부는 수천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적을 추격하여 좌원(태자하상류지방)에서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다.

이 전투에서 한나라군은 《말 한마리도 돌아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가 죽은 후 왕은 직접 현지에 가서 조상하고 7일간 조회를 중지하였으며 례를 갖추어 질산에 장사를 지내고 20여호의 묘지기를 두었다.

*　　*　　*

상식

고구려시기의 유적-서산성

서산성은 고구려시기 수도보조방어성으로서 평양시 만경대구역 선내동의 서산에 있다. 이 성은 서산의 92.6m되는 고지를 주봉으로 하여 동남쪽의 일정한 면적을 포괄하고있다.

3개의 산봉우리와 산릉선을 련결하여 쌓은 서산성은 둘레길이 2 170m정도 되는 전형적인 고구려의 고로봉식산성이다.

성벽과 성안의 여러 지점들에서 많은 붉은색, 회색기와쪼각들과 쇠활촉, 쇠갑옷이 발굴되였다. 성의 모양은 장방형이며 성돌들은 4각추모양이다.

발굴된 유적들을 통하여 성이 고구려시기에 처음 축조되였을뿐아니라 고려시기에도 일정하게 리용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서산성은 평양성(장안성)축조시기인 552~586년에 쌓은것으로서 당시 평양에 수도를 정한 고구려가 그 방위를 위해 보조방어성으로 쌓은것이다.

서산성은 고구려시기의 높은 축성기술, 당대의 력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물질적사료로 된다.

*　　*　　*

조국의 천연기념물 (16)

신원은행나무

황해남도의 천연기념물들에는 또한 신원은행나무, 강호좀구슬피나무, 연안은행나무, 구월산복작노루, 장연조선소 등이 있습니다.

신원은행나무는 황해남도 신원군 계남리소재지마을에서 서남방향으로 3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신원일대에서 제일 크고 오래 자란 은행나무로서 풍치를 돋구는데서 의의가 있는것으로 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보호되고있습니다. 1530년경에 심은 암나무입니다.

나무높이는 26m이고 뿌리목둘레는 7m이며 가슴높이둘레는 6.8m, 나무갓너비는 동서로 15m, 북남으로 20m입니다. 이 나무의 줄기와 가지에는 구새가 약간 들었으나 보호관리가 잘되고있어 해마다 200kg정도의 열매가 달립니다.

강호좀구슬피나무는 황해남도 배천군 강호리에 있는 유적건물인 강서사 대웅전앞에서 자라고있습니다. 나무는 1900년경에 5년생나무를 황주에서 떠다 심은것입니다. 나무의 높이는 20m이고 뿌리목둘레는 2.7m이며 가슴높이둘레는 1.9m, 나무갓너비는 8m입니다.

좀구슬피나무는 보통 15m까지 자라지만 강호좀구슬피나무는 나이에 비해 특이하게 높이 자라고있습니다. 나무는 특산식물인 좀구슬피나무의 분포와 생육특성연구, 유적건물과 함께 이곳의 풍치를 돋구는데서 의의가 있는것으로 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적극 보호되고있습니다.

연안은행나무는 황해남도 연안군 호남리에 있습니다. 연안은행나무는 바다가마을의 풍치를 돋구어주며 오래 자란 나무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보호관리되고있습니다. 이 나무는 1230년경에 심은것입니다.

나무높이는 19m이고 뿌리목둘레는 8.5m이며 가슴높이둘레는 8m, 나무갓너비는 16.5m정도입니다. 나무는 밑둥으로부터 2m 높이에서 많은 가지들이 퍼져있습니다. 특히 나무는 오랜 나무이지만 밑둥과 원줄기의 구새막이를 잘하여 잘 자라고있으며 밑둥부위에서는 수많은 새싹들이 자라고있습니다.

연안은행나무

구월산복작노루

장연조선소

구월산복작노루는 구월산의 남쪽비탈면인 안악군 월정리와 삼천군 추릉리, 고현리일대에서 서식하고있습니다. 복작노루가 분포되여있는 낮은 산기슭은 경사가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있으며 키낮은 나무와 떨기나무가 섞이여 자라고있습니다.

복작노루는 흔히 이런 지대의 덤불숲이나 우묵한 곳에 엎드려 휴식하면서 낮시간을 보내는데 자기의 활동구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복작노루는 우리 나라 특산아종이며 이 일대는 그 분포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장연조선소는 황해남도 장연군 금사리, 광천리일대에서 많이 기르고있습니다. 이 지구의 북쪽에는 여러 산들이 솟아있고 서쪽은 서해바다와 잇닿아있으며 토양이 비옥하고 누기가 적당하여 식물들이 자라는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여있습니다. 장연조선소는 몸집이 우람하며 건장하고 균형이 잘 잡혀있습니다. 특히 몸체의 앞부분이 잘 발달되고 어깨가 높으며 뒤다리사이가 넓은것이 특징입니다. 소의 몸질량은 수컷이 500kg, 암컷은 400kg정도이며 온몸이 누런밤색털로 덮여있습니다.

장연조선소는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소품종의 하나로 평가되고있으며 이 품종의 기본산지인 금사리, 광천리일대에는 그 순종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세워져있습니다.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백현성

유모아

씩씩한 대답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출석을 부르다가 삼돌이에게 말했다.

선생님: 《오삼돌!》

삼돌이: (힘없이) 《예.》

선생님: 《네 목소리는 꼭 녀자목소리같구나. 대포가 터지는것처럼 크고 씩씩하게 대답해야지.》

다음날 다시 출석을 부를 때였다.

선생님: 《오삼돌!》

삼돌이: 《꽝!》

학생들: 《하하하…》

선생님: 《?…》

들가의 민들레꽃

시내물이 돌돌 흐르고 들을 낀 산기슭의 오붓한 마을에 들녀라고 부르는 처녀와 억쇠라고 부르는 총각이 살고있었다. 이들은 다 부자집에서 머슴을 살고있었다.

억쇠는 저녁마다 양떼를 몰고 돌아오면서 시내물이 흐르는 버들방천에서 빨래하러 나온 들녀를 만나군 하였다.

그들중 누가 부자의 심부름으로 어디론가 떠나게 되면 버들방천가 바위짬에 소식을 알리는 나무가지를 끼워넣었다.

그들의 사랑은 봄날의 새싹처럼 움터갔다.

그러나 부자의 마음속에서는 꽃같은 들녀를 왕궁에 궁녀로 보내 벼슬도 얻고 땅도 받아 더 큰 부자가 되고싶은 욕망이 꿈틀거렸다.

옴니암니 생각을 굴리던 부자는 억쇠를 불러들였다.

《난 네가 들녀와 좋아하는것을 안다. 헌데 너희들이 짝을 이루고 살자면 돈이 있어야지? 저 북쪽지방에 산삼이 잘된다는데 산삼 한뿌리면야 집 사고 땅 살 돈을 한밑천 잘 잡게 되지. 그러면 우리 집에 진 빚도 갚게 되고…》

억쇠는 어울리지 않게 친절한 부자의 행동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나 다음순간 이렇게 생각을 굴리였다.

(산삼철에 한몫 보자고 그러는구나. 북쪽지방엔 범이나 곰 같은 맹수도 많으니까 목숨을 잃어도 뒤를 봐줄 식구 하나 없는 나를 보내는게 편할게고. 빚을 갚게 된다는건 꿀발린 소리겠지만 내 기어이 돌아와서 떳떳이 들녀를 달라고 해야지.)

억쇠는 이튿날 행장을 꾸려가지고 북쪽지방으로 떠나갔다.

부자는 제 뜻대로 된것이 너무 기뻐 춤이라도 추고싶었다. 그리고 고을원과 어물쩍해서 들녀를 궁녀로 뽑아가게 하였다.

들녀는 눈물로 온몸을 적시였다.

그날밤 들녀는 버들방천으로 나갔다. 그리고 제 노랑저고리에서 옷고름을 뜯어내여 바위틈에 끼워놓으며 속삭이였다.

《억쇠오빠, 나는 이젠 이 세상에 없어요. 오빠가 돌아오면 나대신 이 노랑옷고름이 맞아줄거예요. 이걸 보며 부디 불쌍한 나를 잊지 말아주어요.》

그날은 하늘도 서글퍼서인지 찌뿌둥하니 흐려지더니 보슬비가 진종일 멎지 않고 내렸다.

산과 들에 내리는 비는 들녀가 옷고름을 끼워놓은 그 바위짬에도 흘러들어 노랑옷고름을 적시였다. 들녀의 눈물배인 옷고름에선 노랑물이 점점이 흘러내려서 바위틈속으로 스며들었다.

그후 노랑물이 스며든 바위틈에서 풀 한포기가 자라나더니 노랑꽃이 피여났다.

하지만 첫꽃이 지도록 억쇠는 돌아오지 않았다. 꽃에는 양산같은 하얀털이 맺히더니 바람이 불자 떼를 지어 동동 날아가는것이였다.

씨앗들은 억쇠가 일하는 숲속으로도 찾아갔다.

그 꽃씨가 너무 이상해서 억쇠는 꽃씨를 따라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씨앗은 들녀와 나란히 마주앉아 다정히 이야기를 속삭이던 그 버들방천의 바위앞에 와서야 멈추어섰다.

억쇠는 너무도 놀라와 바위짬에 손을 넣어보았다.

순간 노랑옷고름이 손에 짚이였다.

이웃집 아주머니로부터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억쇠는 부자의 집에 불을 지르고 마을을 떠났다. 그후 마을엔 억쇠가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남았을뿐이였다.

억쇠와 들녀가 만나던 그 버들방천의 바위틈에서는 여전히 노랑꽃이 피여나군 했다.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한 들녀의 성과 이름을 따서 민들녀꽃이라고 불렀다. 세월이 흐르면서 민들녀는 《민들레》로 변하였다고 한다.

* * *

자주, 민주, 통일을 불러

남조선의 광주시에서 전두환군사파쑈일당의 폭거에 항거하여 인민들이 대중적봉기를 일으켰던 때로부터 38년이 되여온다.

1980년 5월에 있은 광주인민봉기는 미국과 남조선군부독재자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항쟁이였으며 독재권력의 무자비한 무력탄압앞에 결사적으로 맞선 대중적인 무장봉기였다.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자가 제거된 후 자주와 민주, 통일을 열망하는 인민대중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더욱 높아졌다.

남조선군부세력은 당시 3월부터 남조선전역에서 활화산갈이 타번진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저지시키고 저들의 식민지군사파쑈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5월 17일 남조선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주와 민주, 통일을 열망하는 진보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공세를 벌리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극도에 달하였으며 그것은 마침내 광주인민봉기로 화하게 되였다.

5월 18일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비상계엄령해제》, 《유신체제철페》, 《전두환퇴진》, 《민주개혁실시》, 《민주정부수립》 등의 구호를 웨치며 반《정부》시위에 떨쳐나섰다.

광주시 주변의 각계층 인민들도 합류해나섬으로써 봉기자들의 수는 수십만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자체로 무장을 갖추고 《계엄군》과 맞서 용감하게 싸우면서 도시를 10일간이나 사수하였다.

전두환파쑈도당을 반대하여 항쟁에 떨쳐나선 광주시민들

인민들의 투쟁진출에 불안을 느낀 전두환군사파쑈일당은 5월 27일 새벽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땅크, 장갑차, 비행기, 화염방사기, 대구경포 등으로 무장한 공수특전단들과 륙군사단들, 기갑부대, 항공부대 등 수만명의 무력을 투입하여 불의에 봉기군에 대한 야만적인 살륙전을 개시하였다.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전례없는 야수적탄압과 그를 뒤받침해준 미제의 교활한 책동으로 하여 무려 5천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살해되고 1만 4천여명이 부상당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최근 전두환역도는 광주인민봉기당시 《계엄군》에 기총사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한다.

5. 18특별조사위원회가 5개월동안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분석하고 군부대들과 당시 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두환역도는 1980년 5월 21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공격용직승기에서 봉기자들과 시민들을 기관총으로 사격할데 대하여 명령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인민봉기진압에 40여대의 직승기가 동원되여 5월 21일과 27일 광주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기총사격을 퍼부었다.

지어 시민들에게 발칸포사격까지 가해졌다고 한다. 당시 그 모든 진압작전을 전두환역도가 직접 지휘하였다는것이 확인되였다.

민주주의를 위해 궐기해나선 인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대살륙작전을 벌려 광주시를 죽음의 망령이 배회하는 피의 도시로 만든 전두환역도의 대학살범죄는 동서고금의 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무도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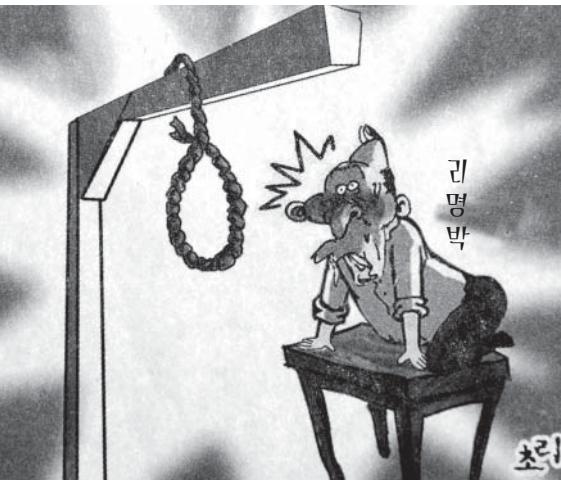
오늘도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정의의 초불을 들고 박근혜역적패당에게 수치스러운 파멸을 선언한 그 과감한 투쟁정신으로 사대와 매국, 독재와 반통일을 일삼으며 특대형범죄를 감행한 전두환, 리명박과 같은 보수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력사의 반동들, 적페의 온상을 깨끗이 청산하지 않는다면 암흑의 력사가 되풀이되게 된다는것이 자주, 민주, 통일의 봄을 부르며 정의의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피할수 없는 운명

남조선에서 리명박의 특대형범죄행위들의 진상이 련이어 드러나면서 역도가 헤여나올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들고있다.

정보원특수활동비횡령, 다스회사실소유자의혹, 싸이버사령부범죄수사은폐, 민간인불법사찰 등 리명박이 집권기간 감행한 범죄행위들은 수두룩하다.

돈도적질에 환장한 역도가 별의별 교활한 수법으로 받아먹은 뢰물액수는 무려 100억원의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껏 범죄사실들이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우겨대던 리명박은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범죄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으며 언론들은 리명박이 박근혜처럼 쇠고랑을 차고 류치장신세를 져야 할 처지가 되였다고 평하고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고 돈에 환장이 되여 온갖 범죄를 저지른 부정부패의 왕초가 민심의 심판을 받는것은 필연이며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본사기자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보수패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이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진지한 노력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완화에로 전환되는데 대해 극도로 당황망조해하면서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역도는 매일같이 《위장평화》니, 《남북평화사기극》이니 하고 현 대화국면을 악랄하게 헐뜯고있다. 이 반역당의 원내대표와 대변인이라는자들도 저저마다 나서서 《의도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느니, 《제재원칙은 절대로 허물어서는 안된다.》느니, 그 누구에게 《꽃길》을 깔아주면 남조선의 《안보가 가시밭길을 걷는다.》느니 하고 피대를 돋구면서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놓으려고 가증스러운 추태를 부리고있다.

그런가 하면 《안보》정당의 냄새를 피우며 6월의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을 긁어모으려고 획책하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망동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로 향한 력사의 흐름에서 밀려나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된 천하역적무리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최근 우리 겨레의 통일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으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은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자주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와 애국애족적지향으로부터 새로운 북남관계개선방침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있다.

공화국의 북남관계개선방침은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문제,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데 대한 문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데 대한 문제 등 현시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해나가는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정확히 제시해주고있다.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과 성의있는 노력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열렬한 지지환영을 받고있다.

그런데 유독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당만은 입에 거품을 물고 민족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도전해나서면서 화해와 단합, 평화의 훈풍을 대결의 역풍으로 뒤집어엎으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이것은 력대로 불순한 《안보장사》놀음에 매여달리면서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온 반통일역적들의 최후발악이다.

남조선보수세력의 행적은 외세를 등에 업고 《안보》의 간판밑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면서 북남대결과 전쟁위기를 격화시킨 용납 못할 반통일죄악으로 얼룩져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이후 북남관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을 때도 리명박역도는 그 무슨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고아대며 6.15통일시대를 추동해온 북남선언들을 마구 짓밟았다. 그리고 모략적인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5.24조치》를 꾸며냄으로써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였다.

박근혜역도의 죄악은 리명박역도를 릉가하였다. 역도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은 안중에도 없이 《안보》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외세와의 전쟁《동맹》강화와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에 그 누구보다 기승을 부리였다. 그로 말미암아 북남협력의 마지막실오리마저 끊어지고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2016년 12월 탄핵의 운명에 처한 박근혜역도는 인민들의 정당한 초불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할 흉계까지 꾸미였다.

민심에 역행하며 반인민적악정을 일삼은 청와대악녀의 뒤에는 언제나 보수패당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패당은 아직도 그 못된 반통일악습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동족대결소동에 더욱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무분별한 대결망동은 남조선 각계에서 고조되는 민족적화해와 련북통일의 기운을 《안보》공세로 차단하며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을 규합해보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더러운 정치적야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보수패당에 대한 반보수, 적폐청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제명을 다 산 시대의 오물들이 제 아무리 발악해도 력사는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민심을 거역해나서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철추가 내려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솔미

조선속담 (심술)

- 논두렁에 구멍뚫기

매우 심술이 사나운 행동을 비겨 이르는 말.

- 못 먹는 감 찔러보는 심사

자기의것으로 만들지 못하는바에는 남도 가지지 못하도록 못쓰게 만들자는 뒤틀린 심보를 두고 이르는 말.

참고: 못 먹는 호박 찔러보는 심사

- 무섭다니까 바스락거린다

무슨 소리가 나는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보고 더 무서워하라고 바스락거린다는 뜻으로(남이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약점을 알고 지꿎게 구는 행동)을 비겨 이르는 말.

- 붙는 불에 키질하기

① 말려야 할 일을 말리지 않고 도리여 부추겨 더하게 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② 신경질이나 성을 낼 때 곁에서 약을 올려 더욱 성이 나게 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③ 틀어져가는 일에 방해를 놓아 더 틀어지게 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좁쌀 한섬 놓고 흉년을 기다린다

① 남이 불행한 처지에 빠졌을 때 제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

② 변변치도 못한것을 가지고 남의 어려운 때를 노려 한몫 단단히 보려고 꾀하는것을 비웃어 이르는 말.

* * *

해외팽창야망에 들뜬 전범국

일본의 해외팽창을 위한 무분별한 광기가 보다 우심해지고있다.

일본수상 아베는 국회 중의원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평화주의》의 기치를 들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느니, 《국민보호》를 위해 실지로 필요한 방위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느니 뭐니하며 횡설수설하였다.

방위상인 오노데라도 아베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받아외웠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에서는 미국과 야합한 각종 군사훈련이 맹렬히 벌어지는 등 군사적움직임이 본격화되고있다. 아베가 시정연설을 한 그날에 일본상공에서는 미국의 《B-52》전략폭격기들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전투기들이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광란적으로 진행하였다.

《평화》의 너울을 쓰고 자국을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로 기어이 만들어보려는 일본의 해외팽창야심의 집중적발로가 아닐수 없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금 일본의 군사력은 한다하는 대국들과 어깨를 겨룰 정도이다. 임의의 순간에 핵무기를 만들어낼수 있는 기술적능력도 가지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그에만 만족하지 않고 보다 로골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군사대국화에 매여달리고있다.

그것은 2018회계년도예산에서 사상최고액수인 5조 1 911억¥을 군사비로 떼여낸것만 봐도 알수 있다.

일본은 이 엄청난 군사비의 대부분을 주변국들도 우려를 표시하는 미국제신형요격미싸일체계 《이지스 어서》와 전투기탑재용장거리순항미싸일, 《F-35A》전투기와 잠수함, 새형의 구축함 등 첨단무장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소비하고있다.

지난 1월에 일본의 미사와기지에 처음으로 다음세대 주력전투기인 《F-35A》가 실질적으로 배비되였으며 앞으로 이 전투기의 납입이 계속될것이라고 하고있다.

일본은 이 전투기에 사거리가 약 500km이고 성능상 적기지공격이 가능한 《죠인트 스트라이크》미싸일을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있다. 이미 장거리작전이 가능한 최신예스텔스전투기 《F-35》, 항속거리가 1만 2 000km이상인 공중급유기 《KC-46A》, 조기경계기 《E-2D》,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공격용첨단장비들을 끌어들이고있는 일본의 군사력강화움직임은 이처럼 갈수록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한편 일본은 헌법을 뜯어고쳐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을 구속하는 법적장치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고있다. 이미 일본은 《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합리화하고 해외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한 상태이다. 하지만 일본은 헌법개악을 통해 이제는 전쟁무력보유를 합법화하고 교전권까지 기어코 되찾으려고 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전범국인 일본이 얼마나 피눈이 되여 해외팽창야망에 미쳐돌아가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게 하고있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군사대국화와 전쟁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은 상전인 미국의 비호두둔밑에 선제공격능력을 키우고있으며 해외팽창야망실현에 발광하고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들과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의 공동훈련은 그 실천단계에서의 군사행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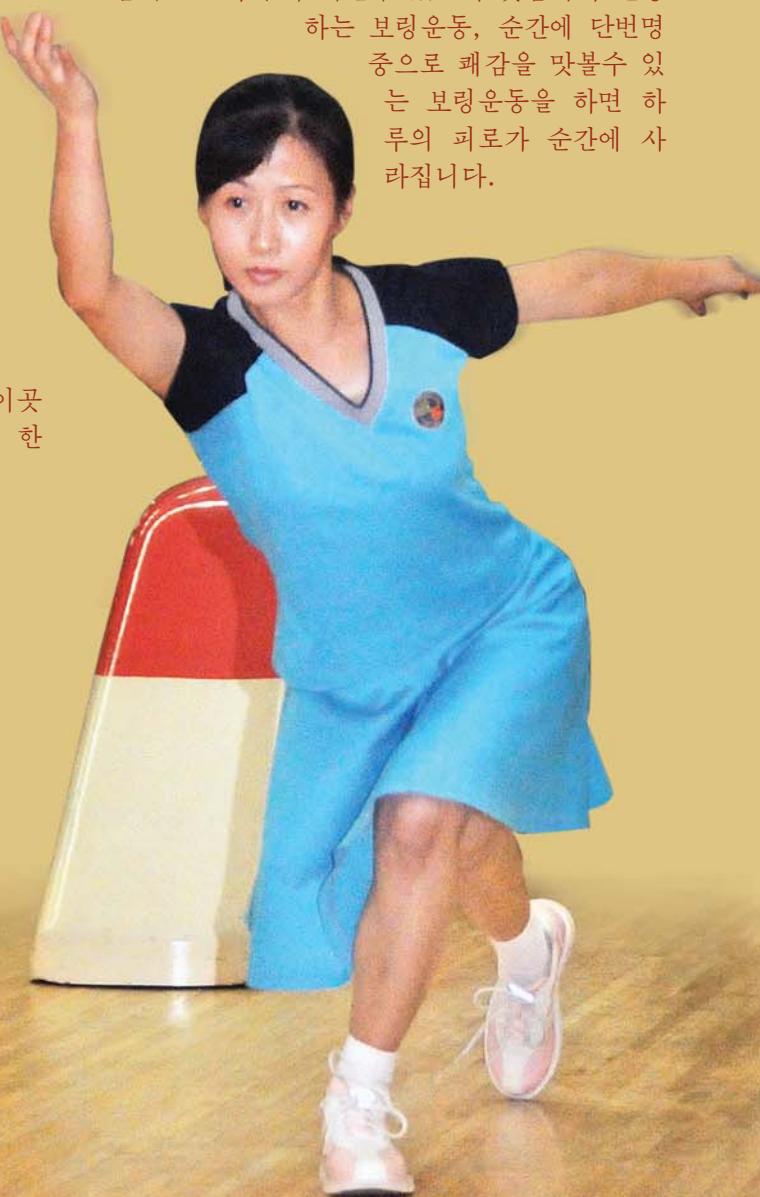
일본의 집권세력이 말하는 《평화주의》기치이니, 《실지로 필요한 방위력》이니 하는 것들은 전쟁국가로서의 체모와 능력을 갖추겠다는 야심의 발현이라고 볼수 있다. 그것은 지난 20세기 전반기처럼 《아시아의 맹주》가 되여 광활한 대륙을 다시 짓밟겠다는것이다.

일본은 해외팽창야망에 사로잡혀 분별을 잃고있는데 재침열에 들뜬 머리를 식히고 랭철하게 생각해보아야 할것이다. 오늘의 변화된 현실을 똑똑히 보지 못하고 과거 저들이 이루지 못한 옛꿈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것만큼 어리석은 망상은 세상에 없다는것을, 그것은 오히려 일본침몰이라는 종말로 끝나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리성적으로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권정남

조선의 관광

하루의 피로를 풀려면 보링을…

평양보링관은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있습니다.

세개의 고깔모양의 모자를 머리에 쓴것처럼 특색있게 건설된 평양보링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82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52돐에 즈음하여 재일동포상공인 권영숙과 그의 가족들이 선물로 보내온것입니다.

보링관은 2개의 층과 지하로 되여있고 40틀의 현대적인 보링설비가 콤퓨터에 의해 조종운영되고있으며 여러가지 오락시설과 식당, 상점 등 봉사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습니다.

국제경기도 할수 있도록 훌륭하게 꾸려진 이곳에서는 매일 문화휴식과 체력단련으로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릅니다.

남녀로소 누구나 다할수 있으며 웃음속에 진행하는 보링운동, 순간에 단번명중으로 쾌감을 맛볼수 있는 보링운동을 하면 하루의 피로가 순간에 사라집니다.

창전거리의 봄　　본사기자 김성철

봄을 맞은 창전거리는 밤하늘가에 피여난 축포야경으로 하여 더욱 이채롭고 아름답다.

하늘을 찌를듯 솟아난 창전거리의 살림집들에서는 인민의 웃음 넘쳐나고 봄의 훈향은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소리없이 스며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882138
http://www.korean-books.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